소년단

1961. 6

(만경대에서)

앞으로 앞으로 어깨겯고 앞으로

하늘로 하늘로 6월의 하늘 높이
기'발이 날린다 소년단 기'발이
우리 자란 열다섯 해 자랑차구나
두리둥둥 북을 치자, 노래 부르자

혁명의 정신 깃든 붉은 넥타이
공산주의 앞길에 휘날리며 나간다.
태산이 무엇이랴 격랑이 무엇이랴
뛰여 건너 앞으로 날아 넘어 앞으로.

김 일성 원수님의 넓은 품에서
아동단원 그 마음으로 우리 자랐다.
나가자 뒤떼뒤떼 나팔을 불며
앞으로 앞으로 160만 앞으로

우리는 원수님의 어린 전사들
분단마다 자랑스런 《모범 분단》 기'발이다.
이 기'발—우리의 마음 붉게 붉게 날리며
척척척척 나간다 160만 나간다.

소년단 6호 내용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을 배우며 본 받자!

김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제 3 회)

윤 복 진

그림 최 순 천

☆ 할아버지가 들려 주신 옛'이야기

원수님은 어린 시절에 옛'이야기를 무척 좋아 하셨습니다.

원수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어린 원수님에게 재미나는 옛'이야기를 자주 들려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낮에는 논 밭 일을 하시며 밤에는 짚신을 삼거나 멍석을 매면서 옛'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옛'이야기에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며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본받도록 하는 훌륭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원수님은 할아버지의 옛'이야기를 무척 좋아 하셨습니다.

하많은 할아버지의 옛'이야기 중에서 하나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래지도 않은 옛날이였습니다.

가을 하늘이 더 없이 높고 맑은 어느 날, 남해 바다'가 이름 없는 어느 포구에서 고기'배 한 척이 떠나 갔습니다.

이 배는 다리'배였습니다. 돛을 단 범선이긴 하나 꽤 큰 배였습니다. 이 배에는 어부들이 보름 가량 먹을 쌀이며 땔나무며 물을 잔뜩 실었습니다.

배는 모든 준비를 잘 갖추어 순풍에 돛을 달고 고기'떼를 찾아 먼 바다로 떠나 갔습니다.

포구에서 떠난지 사흘째 되는 날이였습니다.

맑은 하늘이 갑짜기 흐려지면서 사나운 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시꺼먼 구름이 온 하늘을 덮으며 바람은 더욱 사나와졌습니다. 성난 물'결은 쉴새 없이 물 벼락을 뒤집어 씌우군 하였습니다.

배는 방향을 바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는 작은 나무'잎마냥 폭풍에 밀려 어디론지 멀리 떠 내려 갔습니다.

사나운 폭풍은 몇 날 며칠 계속되였습니다.

용감한 어부들은 굽히지 않고 폭풍과 싸웠습니다.

폭풍은 마침내 멎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몹시 지쳤습니다. 식량은 하루나 이틀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나운 폭풍은 물리쳤으나 앞으로 무엇을 먹으며 천리 만리 먼 고향에 돌아가나…)

어부들은 속으로 이런 걱정을 하면서 말 없이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이 때에 늙은 어부 한 사람이 불쑥 나섰습니다. 그는 본 얼굴에 밝은 웃음을 띄우며 말하였습니다.

《뭘 그리 걱정들만 하고 있소. 고기나 많이 잡아 가지고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당장 먹을 식량이 없는데, 무슨 수로 천리 만리, 먼 길을 고기까지 잡으며 가자고 하나요.》

젊은 어부들은 늙은 어부의 말을 그저 지나가는 우스개로만 생각했습니다.

늙은 어부는 아침 저녁 밥을 짓는 화장이였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을 바다에서 살아 왔습니다. 늙은 화장은 언제나 후'날을 생각하여 밥을 지을 때 마다 매 사람 몫에서 두 술씩 쌀을 떠 내여 남 몰래 적지 않은 식량을 모아 두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늙은 화장이 절약해 모은 식량으로 어부들은 생명을 부지하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고기까지 한 배 가득 잡아 싣고 무사히 그리운 고향 포구에 닿게 되였습니다.

× × ×

원수님의 할아버지는 집안 사람들에게 이러한 옛'이야기를 종종 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옛'이야기를 끝마치면서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절약을 해야만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 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큰 살림도 절약을 잘 해야만 백성들이 근심 없이 살게 된다고 하시며 집안 사람들에게 언제나 절약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할아버지의 이 말씀은 어린 원수님의 가슴 속에 한평생 지울 수 없는 붉은 글'자로 깊이 새겨 졌습니다.

☆ 뒤웅박

원수님의 집안 어른들은 언제나 부지런하셨고 어떤 물건이든지 아껴 쓰며 소중히 다루셨습니다.

무엇보다 제 땅이 없는 원수님 집은 한 뙈기의 땅이라도 알뜰살뜰히 다루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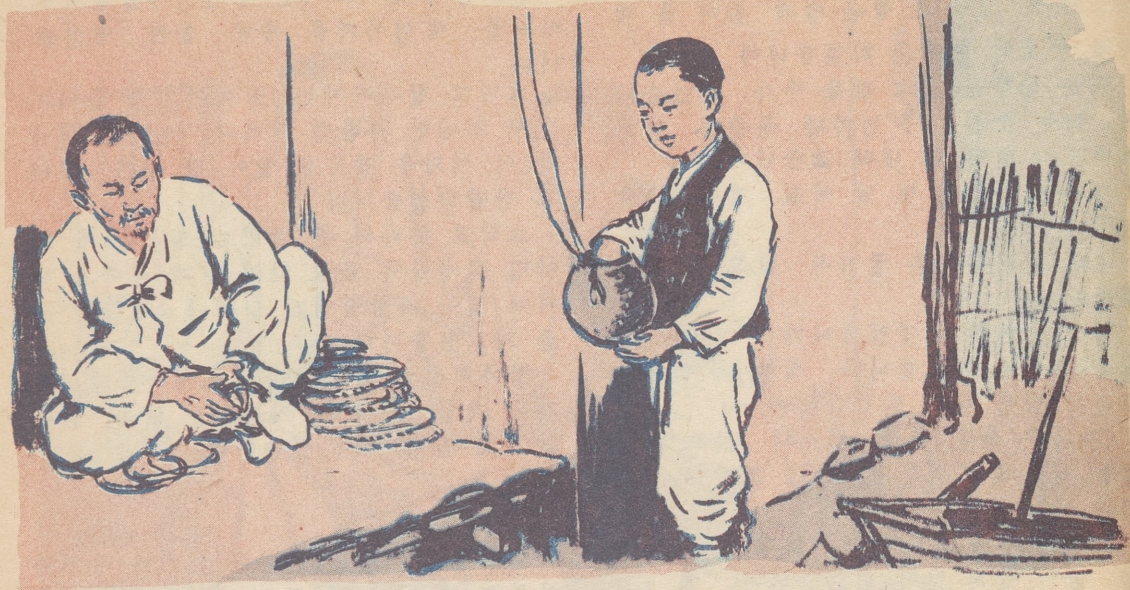
길'바닥에 굴러 다니는 나무'잎과 '부레기 하나도 쓸어 모아서 좋은 거름을 만들었으며 뜨물 한 바가지도 잘 모아서 어느 뉘집 밭보다 많은 거름을 냈습니다.

원수님의 할아버지를 잘 아시는 로인들은 누구나 다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그 분은 무서운 어른이였지요. 그 어른은 밭 머리나 집 곁에 한 치의 땅이라도 묵이는 법이 없었지요.》

《그 어른의 손은 황금 같은 손이지요. 그분의 손이 닿기만 하면 죽었던 땅도 숨을 내 쉰다니까요.》

참으로 원수님의 할아버지는 한 치의 땅도 아끼며 힘써 얻어 냈습니다.

밭'머리와 집 부근 뿐만 아니였습니다. 길 섶이나 강 뚝에도 콩 한 알이라도 더

심었고 채'둑이나 산 기슭 돌짝밭을 일쿠어 귀중한 곡식을 심어 한 알의 낟알이라도 더 거두어서 어려운 살림을 이어 나갔습니다.

원수님의 할아버지는 앞 뒤'뜰과 산 기슭에 가지가지 과일 나무를 심어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삼촌 어머니는 저희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삼시로 죽을 먹었으나 과일만은 할아버지 덕택에 철따라 흔하게 먹었지요.》라고 하시며 집은 비록 가난했으나 봄에는 꽃 속에서 가을에는 열매 속에서 살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님의 할아버지는 농기구를 아껴 쓰며 언제나 소중히 다루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보섭은 언제 봐도 번쩍번쩍했고 녹이 쓴 적이 없었다 합니다.

해가 서산에 뚝 떨어지고 밭 이랑이 잘 보이지 않을 때까지 늦도록 밭 갈이를 하신 날에도 집에 돌아 오셔서는 보섭에 묻은 흙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또 쓰실 보섭이라도 비'바람이 범접 못하는 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보섭 날이 녹 쓸지 않게 돌을 받혀 놓아 두시군 하였습니다.

호미나 낫 한 자루도 쓰시고 나면 반드시 닦고 갈아서 제 자리에 꼭꼭 건사 하시군 하셨습니다. 원수님의 할아버지가 쓰시던 농기구는 지금도 만경대 고향 집에 예전처럼 놓여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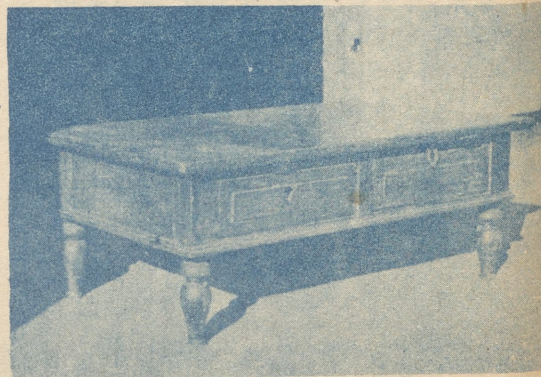
원수님 할아버지는 물건을 아껴 쓰시며 언제나 소중히 다루셨습니다.

원수님 고향 집 기둥에는 둥그런 뒤웅박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쓰다 남은 못 나부랭이며 쇠 쪼박이며 삼 노끈을 허투루 버리지 않고 뒤웅박 속에 모아 두셨다가 요긴하게 쓰시군 하셨습니다.

어린 원수님은 이 뒤웅박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원수님의 고향 집에는 흰 물동이와 쭈그랑 독이 있습니다.

그 중 물동이는 원수님의 증조 할머니가

어린 시절 원수님이 쓰시던 책상

쓰시던 것을 할머니가 물려 받고 또 어머니가 물려 받아 백년이나 써 내려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알뜰하고 조심성이 많은 손들이 썼기에 옹기 물동이 하나를 백년 넘도록 써 내려 왔겠습니까!

금이 나면 헝겊으로 붙이고 또 금이 나면 장흙 (백토)으로 때고 또 금이 나면 쎄멘트를 구해서 때고 해서 본시는 재 빛 물동이가 그 몇번을 때고 또 때였든지 지금은 흰 물동이로 되였습니다.

알뜰한 손들이 때고, 또 때여 쓰고 나중에는 물이 철철 새여 물동이로 쓸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도 버리지 않고 콩나물 동이로 썼다하니 원수님의 증조 할머니로부터 어머니, 삼촌 어머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알뜰한 손들이 아끼고 아끼며 써 내려 왔습니까…

쭈그랑 독의 이야기도 흰 물동이 력사와 다름이 없지요.

이 독은 할머니가 시집 오셨을 때 자서 이 날까지 써 오셨습니다.

어느 날, 바로 집 앞에 있는 선창에 독장사 배가 들어 왔습니다. 할머니는 독 구경을 나가셨습니다. 가난한 할머니는 값이 눅은 쭈그러진 독 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성한 독을 산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 쭈그랑 독에 장을 말면서 성한 독보다 못지 않게 아껴 써 왔습니다.

이처럼 원수님의 할머니는 값이 없는 물건도 값나게 썼습니다.

원수님 아버지가 집안 사람도 모르게 《독립 운동》을 시작하자 집에는 낯선 손님들이 자주 찾아 오셨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면 어머니는 손님이 걱정 되여 할머니 보고 말씀하면《뭐 걱정할게 있나 손님 죽을 먼저 한 사발 뜨고서 물 한 사발 더 두어 나눠 먹으면 되지 않겠나.》하고 언제나 속 씨원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닮아 어렵고 구차한 살림을 꾸려 나갔으나 언제나 꿋꿋하게 어려운 가난과 싸워 오셨습니다.

이렇듯 로동을 사랑하고 물건을 아끼며 덕 없이 소중히 다루시는 훌륭한 어른들 속에서 어린 원수님은 많은 것을 보고 배웠으며 훌륭한 그 정신을 이어 받았습니다.

☆짚신과 책상

가난한 농사 집에 태여 나신 원수님은 어린 시절 짚신만 신으셨습니다.

오늘의 행복한 소년단원 동무들이 신는 구두는 꿈에서도 생각할 수 없었고 가벼운 운동화나 고무신 한 켤레도 한 번 사신지 못하셨습니다.

원수님은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삼촌 아버지가 삼아 주신 짚 신을 신으셨습니다. 원수님의 어머님은 언제나 어린 아들을 보고 할아버지를 생각하여 짚신을 아껴 신으라고 타일렀습니다.

마른 신은 날래 궤여진다고 말씀하시며 아침 저녁 짚신 바닥을 물에 추겨 신는 법을 배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짝 저짝 바꾸어 오래 신는 법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 원수님은 어머니의 말씀을 잘 지켜 할아버지가 삼아 주신 짚신을 언제나

아끼며 오래 신으셨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은 누구나 원수님이 어린 시절에 쓰시던 책상 앞에 서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 보게 되며 뉘우치고 깨닫는 바가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원수님의 책상 앞에 나서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 집니다.

원수님이 어린 시절 쓰시던 책상에는 칼 자국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연필자국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세히 살펴 보면 먹물이나 잉크를 엎지른 자국도 없습니다.

원수님은 어린 시절 자기의 책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또 아끼셨는가!

삼촌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 보면 어린 원수님은 4~5세 때부터 아버지를 본 받아 책을 사랑하고 무척 아끼셨다고 합니다.

그때, 집에서《천자》책 (한문 책)을 한자 두자 배우셨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켜 책을 사랑하고 소중히 다루셨습니다.

책을 읽으신 후에는 반드시 책상에 꽂아 두시군 하셨습니다.

원수님이 배우시던 책은 그 어느 책이나 뚜껑을 곱게 씌웠고 어느 한 장도 귀가 떨어졌거나 접어진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원수님은 창덕 학교에 다니실 때 이런 뜻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은 혼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보아야 하며 좋은 책은 두고두고 보아야 하며 후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언제나 깨끗이 보아야 한다.》

원수님은 책을 소중히 다루지 않는 동무들을 보시고 자주 이런 말을 하셨으며 동무들의 책 뚜껑까지도 만들어 곱게 씌워 주셨다고 합니다.

비단 책만이 아닙니다. 일체의 학용품을 아껴 쓰시며 소중히 다루셨습니다.

연필 한 자루도 쓸 수 있는 데까지 쓰시였습니다. 깎고 또 깎아서 연필이 너무 작아져서 손에 쥘 수 없을 때는 붓대통에 꽂아서 끝까지 깎아 쓰시였습니다.

원수님은 어린 시절에 모자를 함부로 내 돌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 오시면 반드시 모자 걸이에 걸어 두시며 깨끗이 쓰시였습니다.

창덕 학교에 다니실 때 일요일이면 원수님은 본가 댁에로 오셔서 만경봉 우에 있는《학습 터》에서 조용히 앉아 책을 읽으실 때도 모자는 소나무 가지에 걸어 두시군 하였습니다.

이렇듯 원수님은 어린 시절 책을 사랑하며 소중히 다루시며 자그마한 끄마 연필 한 자루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아껴 쓰시였습니다.

열 세살 나는 해 봄, 원수님이 배움의 천리'길을 걸어 오신 그 이야기는 그 몇번을 들어도 가슴을 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감격케 합니다.

압록강을 건너서 고향으로 오는 이 길에 높은 산은 얼마나 많으며 깊은 강은 얼마나 많습니까, 어른들도 감히 생각을 내지 못하는 그 머나 먼 길을 혼자서 떠나오셨습니다.

한 번도 걸어 본적이 없는 낯선 천리'길을 원수님은 혼자서 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멀고 험하고 힘든 길에서 원수님은 로자까지 절약하여 할아버지에게 맡겼습니다. 그 돈으로 창덕 학교에 다니실 때 학용품을 사 쓰시며 학비까지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병환이 중하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다시 동북으로 들어 가실 때 이 돈을 로자로 보태 쓰시였다고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당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자라온 15년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단 사업부 부장 김 인선

소년단원 동무들!

올해 동무들은 사회주의 조국의 품속에서 배우며 자라는 기쁨과 자랑도 드높이 뜻 깊은 소년단 창립 열 다섯돐 명절을 맞이 합니다.

조선 소년단은 지금으로부터 열 다섯해 전인 1946년 6월 6일에 당과 김 일성 원수님께서 창립해 주셨습니다.

우리 나라의 소년단원들을 믿음직한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준비시키는 소년단은 항일 빨찌산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이어 받았고 아동단의 슬기로운 모범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년단은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따뜻한 품 속에서 실로 행복하고 보람차게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 어린이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마음껏 배우며 자라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동무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훌륭한 학교와 교과서, 학용품은 물론이고 철따라 교복과 외투까지도 내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푸른 물'결 출렁이는 동해 바다'가 속후, 송도원, 그리고 석암을 비롯한 조국의 아름다운 명승 고적지들과 유서 깊은 혁명 전적지들에다 야영소를 세우고 동무들이 즐겁게 휴식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당과 정부에서는 동무들을 위해 평양에다 얼사한 소년 궁전을 건설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한한 행복 속에서 조선 소년단은 학습을 잘하는 한편 나라의 은 혜에 보답하기 위한 보람차고 유익한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해방후 평화적 건설 시기에도 우리의 소년단원들은 나라의 민주 건설을 위하여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항일 빨찌산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이어 받은 조선 소년단의 영예를 떨친 것은 미제와 리 승만 도배의 침략을 물리치는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 시기였습니다.

우리 소년단원들은 원쑤들의 폭격이 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방공호 안에서 공부를 계속하였고《소년호 비행기》,《소년호 땅크》헌납 운동, 인민 군대 후방 가족을 돕는 일 등으로 전쟁 승리를 위해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원쑤들이 한 때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 기여 들어 왔을 때는 평남 안주 립석 중

학교와 평북 선천 애육원, 만경대 중학교, 강원도 린제, 황남 구미포 등을 비롯한 곳곳의 소년단원들은 로동당원 아저씨들과 민청원 형님들의 지도 밑에 소년 빨찌산을 조직하여 원쑤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황남 벽성군 송간 인민 학교 소년단원들과 강원도 금화군의 소년단원들은 소년 무장 자위대를 조직하여 원쑤들이 얼씬도 못하게 사랑하는 고향 마을을 지켜냈습니다.

특히 빨찌산에서 용감히 싸우다가 불행히도 원쑤들에게 체포되여 온갖 고문을 받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굴하지 않고 빨찌산의 비밀을 지켜낸 서 강렴 동무와 한 영국 동무들의 이름은 많은 어린 애국자들의 이름과 함께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전후에도 우리의 소년단원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한편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돕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쓸모 있는 지식과 기술을 익히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돕는 《따마 5개년 계획》 활동, 《따마 7개년 계획》 활동 등은 조국을 사랑하는 소년단원들의 훌륭한 애국적인 운동입니다.

소년단원들은 여러 가지 폐물 등을 모으며 피마주, 해바라기를 가꾸고 토끼를 키우는 일 등을 통해 얻어진 돈으로 이미 1958년에 민주 수도 평양시 건설장에 《소년호 기중기》를 보냈으며 뒤'이여 나라에 《소년호 렬차》를 선물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농촌에 30대의 《소년호 뜨락또르》를 보내였으며 민주 수도 건설장에 《소년호 자동차》를 보내였습니다.

이번에도 공화국 소년단원들은 뜻 깊은 소년단 창립 열 다섯 돐을 맞으면서 또다시 나라에 수십대의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선물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보람찬 일입니까!

실로 조선 소년단은 이 보람찬 투쟁 속에서 오늘 160 여 만의 소년단원들을 묶어 세운 씩씩한 붉은 소년들의 집단으로 자라났습니다.

소년단은 민청의 교대자입니다. 소년단원들은 민청 형님 누나들의 뒤를 따라 훌륭한 민청원이 되며 장차 영예로운 로동당원이 되는 것을 더 없는 영예로 여기고 있습니다.

조선 소년단은 그 동안 민청의 지도 밑에 자기 조직을 튼튼히 꾸리는 한편 수많은 민청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소년단에서 자란 민청원 형님들은 공장에서, 농촌에서, 인민 군대에서,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당과 수령님께 충성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자기의 피끓는 청춘의 가슴으로 적화구를 막은용감한 리 수복, 박 원진 영웅 형님은 소년단에서 자란 훌륭한 민청원이였습니다. 오늘 영예로운 로력 영웅들과 로력 혁신자들 속에도 지난날 소년단에서 자란 형님 누나들이 많습니다.

지금 각지 소년단 단체들은 지난해 있은 민청 중앙 위원회 제 10차 확대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년단 조직을 더욱 튼튼히 꾸리며 혁명 전통 학습과 공산주의 교양을 잘하여 소년단 사업을 더 재미있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우기 아버지 어머니들의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뒤따라 시작한 《모범 분단》 칭호 쟁취 운동은 우리의 소년단원들의 학습과 생활에서 훌륭한 모범들을 수 많이 낳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소년단원들 속에서는 《따마길 학실》로 불리워지는 문 정숙 동무를 비롯하여 김 경섭, 김 민자 동무 등 서로 돕고 받들어 공부 잘 하며, 례절이 밝고, 로동을 사랑하며,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날로 늘어 가고 있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동무들은 이렇게 행복하지만 남반부의 어린이들은 악독한 미제의 발굽 밑에서 동무들처럼 배울 나이에 배우지 못하고 헐 벗고 굶주리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미국놈들의 총탄에 맞아 죽어 가고 있습니다.

오직 남반부 소년들을 우리 북반부 소년들처럼 마음껏 행복하게 배우며 즐겁게 뛰놀게 되자면 간악한 미제를 물러가게 하고 조국이 하루 속히 평화적으로 통일되여야 합니다. 때문에 남반부 인민들과 소년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 놈들을 반대해 용감하게 일어나 싸우고 있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자랑과 행복으로 가득찬 영광의 길을 걸어 온 소년단 단체와 소년단원들 앞에는 더 보람차고 영예로운 임무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소년단원들은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대로 항상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고 동무를 사랑하며 집단을 사랑하고 조직을 사랑할 줄 아는 정신을 키워 나가야 할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정에서는 부모와 동생을 사랑하고 마을에서는 어른들을 존경하고 학교에서는 동무들과 선생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혁명 선배들의 붉은 마음과 슬기로운 아동단원들의 모범을 더 깊이 배우고 실지 자기 행동에 옮겨 나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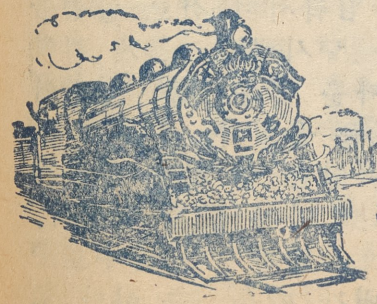
또한 소년단원들은 로동을 사랑하고 배운 지식을 실지 로동을 통하여 쓸모 있게 다지며 모두가 우등, 최우등생이 되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년단원들은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자기가 공부하는 학교도 다 자랑하고 아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우리를 해치려는 원쑤들을 미워하며 혁명적 경각성이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좋은 것을 따르고 나쁜 것을 버리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소년단원들은 소년단원의 영예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소년단 생활에 더욱 충실히 참가하며, 조직이 주는 위임이라면 어떠한 일이 있드라도 어김없이 해내며 모두가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더욱 굳게 뭉쳐 공부 잘 하고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아버지 어머니들을 도와 힘차게 앞으로 나아 갑시다.

원수님의 품속에서 우리는 행복하다

《너는 로동당의 아들이다》

지난 5월 7일 김 일성 원수님을 모시고 비날론 공장 준공을 경축하면서 5월의 명절을 기념하는 함흥시 군중 대회와 시위 때의 일이다.

이날 함흥시 광장에서는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옳바른 령도 밑에 우리 기술, 우리 힘으로 불과 1년 남짓한 동안에 세계 1등급의 비날론 공장을 건설 해 낸 자랑도 드높이 20만 군중들의 장엄한 시위가 진행되고 있었다.

시위 대렬 한 가운데에 커다란 무궁화 꽃송이가 자동차에 실려 넘실넘실 주석단 앞으로 다가 왔다. 군중들의 시선은 일제히 그 꽃차에 쏠렸다.

거기에는 흥남 비료 공장 병원 강 하종 2중 천리마 외과 과장과 함흥 의대 장 관학 형님, 흥남 비료 공장 병원 함 정희 간호원 누나가 타고 있었다.

그런데 꽃차가 주석단 앞에 이르러 멎더니 그 속에서 꽃 묶음을 든 소년 하나가 붉은 넥타이를 하늘하늘 날리면서 주석단 앞으로 걸어가지 않는가!

그가 바로 방 하수 동무인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온 몸에 화상을 입어 그처럼 많은 사람들의 피부를 떼여 받은 그가 벌써 제 발로 걸어 나와 제 손으로 원수님께 꽃다발을 드릴 줄이야…

군중들은 멈춰서서 서로 발돋움하면서 로동당 시대에 붉게 피여난 이 아름다운 꽃송이를 향하여 목청껏 환성을 올렸다.

꽃 묶음을 안은 방 하수 동무가 원수님 앞으로 다가 갔을 때였다. 원수님은 《오, 네가 방 하수로구나, 어디 내가 너를 좀 안아 보자.》 하시며 방 하수 동무를 들어 주석단 관람대 우에 앉히면서 《너는 로동당의 아들이다.》라고 감격어린 어조로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그의 생명을 구원한 강 하종 외과 과장과 장 관학 형님의 두 팔을 높이 추켜 들면서 《동무들은 진정한 공산주의자요.》라고 치하 하시며 만족한 웃음을 지으셨다.

사람들은 흥분과 감격을 어찌할 줄 모른다. 어느 누가 영광스러운 로동당의 아들 딸이 아니랴만 특히 방 하수 소년을 로동당의 아들이라는 고귀하고 영예로운 이름으로 불러 주신 수상님의 말씀은 20만 군중의 가슴을 울리였다.

그렇다! 지금 방 하수 동무의 몸에는 바로 로동당 시대에 자라난 160 여 명의 공산주의자들의 고귀한 살'점이 옮겨졌고 그의 혈관 속에는 역시 그들이 나누어 준 티 없이 맑은 피가 흐르고 있지 않는가!

사람을 이처럼 지극히 사랑하는 정신— 이는 실로 항일 빨찌산의 혁명 전통을 이어 받은 우리 로동당 시대의 사람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정신이다.

그러기에 시위 군중들은 그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을 길러 준 우리 당과 원수님께 다함 없는 감사와 영예를 드린다.

방 하수 동무도 자기의 잃었던 생명을 구원해 준 당과 원수님께 끓어 넘치는 감사의 마음으로 손을 저었다.

《조선 로동당 만세!》

《김 일성 원수 만세!》

그러자 사람들은 더욱 목청을 돋구어 반룡산이 떠나 갈 듯이 웨쳤다.

《하수야! 영광이 있으라!》

《오래 오래 살아라!》

《로동당의 아들 된 보람을 떨쳐라!》

사람들은 좀처럼 주석단 앞을 떠날 줄 모른다. 만세 소리는 더욱 높아진다.

《조선 로동당 만세!》

《김 일성 원수 만세!》

원수님께서도 감개 무량하시여 계속 손을 저으신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모두 감격하여 손수건을 꺼내 드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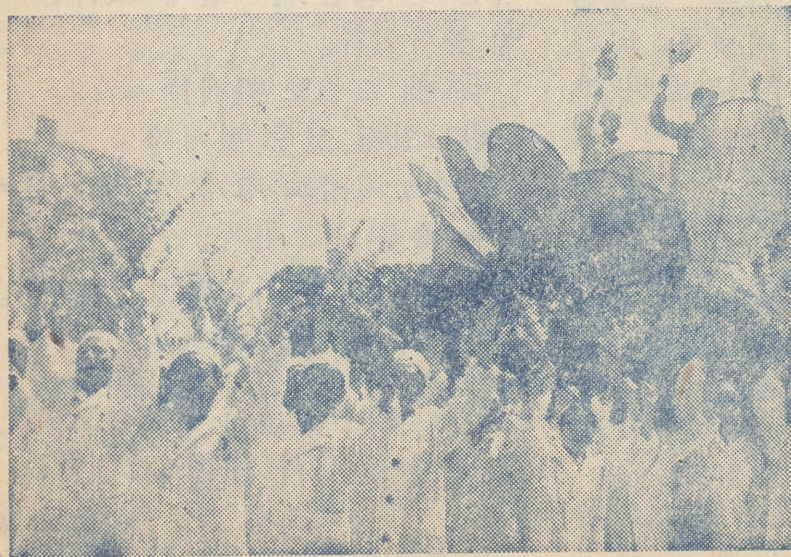
방 하수의 자그마한 주먹이 련송 두 눈을 비빈다.

군중들은 더욱 열광적으로 발 돋음

하면서 감격의 만세를 웨치는데 의료 일'군들 속에서는 그만 울음 소리가 들린다. 그들의 팔과 다리에는 방 하수 동무에게 살을 떼여 준 검푸른 자리가 아직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방 하수 동무의 살'결은 벌써 새'빨간 꽃으로 피여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 속에 안기지 않았는가!

지난 2월 20일! 바로 그날은 방 하수 동무가 영예롭게도 소년단에 입단한 날이다.

목에 붉은 넥타이를 맨채 해'살 밝은 침실에서 하수 동무는 《김 일성 원수의 어린 시절》, 《ㄸ마 동무》 등의 그림 책을 앞에 놓고 함 정희 간호원과 함께 방울 같은 소리로 조잘거리며 웃고 있었다.

만일 남조선에 하수가 태여 났더라면…

거기서는 귀여운 어린 생명들이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미국놈의 과녁이 되여 죽는다.

버림 받은 고아들이 행길'가에 쓰러져 가는 것을 보고도 돈 있는 놈들은 동정은 고사하고 눈'살을 찌프리며 지나 간다.

입원 치료비를 못 낸다 하여 죽은 시체마저 내여 주지 않는 그런 제도하에서 하수가 그처럼 화상을 입었더라면 어떻게 되였겠는가! 생각만해도 몸서리가 쳐지는 일이다.

《너는 참말 행복하구나.》

《너는 로동당의 아들이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름인가!

방 하수 동무의 피부 수술을 하는 날 사람들은 얼마나 앞을 다투어 수술장으로 달려 왔던가!

《꼭 살리고야 말겠습니다.》강하종 외과 과장의 믿음직한 목소리,

《로동 계급의 살은 더 단단합니다.》

방 하수 소년이 타고 가는 꽃바구니 행진

그때 마침 입원 중이던 룡성 기계 공장 로동자 김 태학 아저씨의 피나는 목소리,

《내 살을 크게 떼여 하수의 심장에 덮어 주시요.》 함흥 의대 장 관학 형님의 목소리,

《당과 수령님이 아니였드라면…》

목놓아 울던 어머니의 통곡 소리, 어찌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

로동당 시대에만이 사람의 목숨이 죽음에서 구원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허리를 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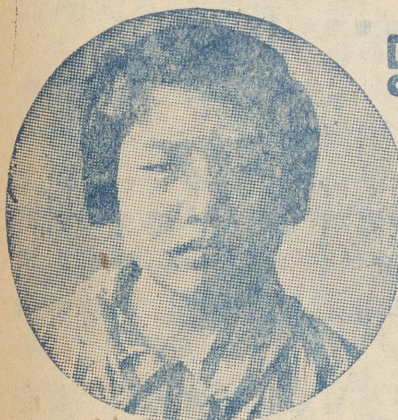
로동당 시대에 만이 천리마가 세월을 주름 잡아 사람들을 영원 무궁한 행복의 꽃 동산으로 인도하고 있다.

독자들이여!

조국 앞날의 주인공들이여!

로동당 시대에 나서 당의 기'발 밑에 행복하게 자라는 우리의 자랑을 소리 높이 노래하자!

우리 모두다 로동당의 믿음직한 아들 딸이며 경애하는 김 일성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임을 소리 높이 자랑하자.

그리하여 우리 대렬에 로동당의 아들로 새로 살아 난 방하수 동무의 손목을 잡고 공산주의 앞날을 향하여 씩씩하게 배우며 활개쳐 나가자!

당은 그의 눈을 띄워 주었다

당과 원수님의 품 속에서 우리 공화국 어린이들은 무한히 행복하게 배우며 자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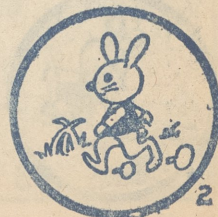
여기에 행복한 사회주의 제도가 아니고서는, 당과 원수님의 품 속이 아니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또하나의 감격적인 이야기가 있다.

평양시 동대원 구역 삼마동 74반에 사는 배 혜숙이는 불행하게도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소경이 되여 태여 났다.

그는 우리들 눈 앞에 아름답게 펼쳐진 광명의 세계와 황홀한 자연의 세계를 전혀 보지 못했고 자애로운 어머님의 얼굴도 보지 못하며 자라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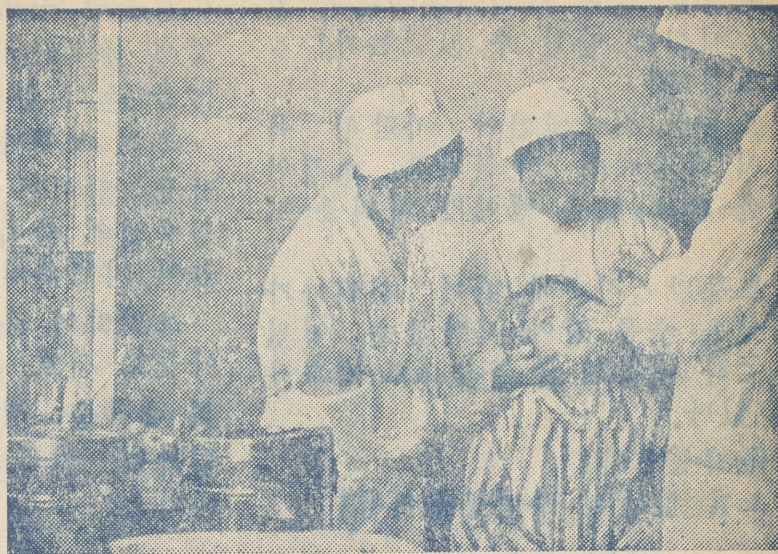
우리들은 누구나 항상 행복에로 이끌어 주시는 김 일성 원수님의 인자하신 얼굴을 눈 앞에 바라 보며 더 큰 행복을 느끼군 한다.

그러나 혜숙이는 안타까이 원수님의 얼굴을 가슴 속에 그려 보다가 괴로워 얼굴을 파묻던 때가 한두번이 아니였다. 차라리 혜숙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차차 철이 들어 세상 사람들은 자기처럼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밝은 세상에서 활개치며 산다는 것을 느끼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몹씨 답답하고 안타까워 했다.

동생들은 마당에

서 좋아하며 자전거를 타며 놀기도 하고 아버지를 따라 재미 있는 영화 구경도 갔지만 이럴 때마다 혜숙이는 혼자서 집에 남아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안과 의사 선생님들과 배 혜숙

혜숙이가 이처럼 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와 할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은 더욱 괴로웠다. 《배 안의 소경은 고치는 례가 없으니 할 수 없지, 어미가 원쑤로구나,》 하고 한탄하시며 병원에는 가 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지난 1월 초순 어느 날 혜숙이네 집에는 의사 선생님이 한분 찾아 오시였다. 이는 천리마 작업반인 적십자 병원 안과 의사 백 성숙 선생님이였다. 적십자 병원 안과 선생님들은 지난 해 8월 21일 전국 천리마 작업반 운동 선구자 대회에서 우리 나라에 있는 모든 맹인들을 다 눈 뜨게 하여 사회주의 락원을 볼 수 있게 하라고 하신 김 일성 원수님의 교시를 실천함으로써 천리마 기수의 영예를 빛내겠다고 결의하고 혜숙이네처럼 숨어 있는 맹인들을 찾아 다니였다.

혜숙이 어머니는 의사 선생님이 일부러 방문까지 해주시니 그 고마움에 감격의 눈물을 지으시면서 《우리 혜숙이야 배 안의 병신이니 어떻게 고치겠소.》 하고 말씀하시였다.

의사 선생님은 혜숙이의 눈을 보시고 나서 《지금까지 혜숙이처럼 배 안에서부터 보지 못하는 눈은 고쳐 본 례가 없지만 우리는 김 일성 수상님 교시 대로 어떤 방법으로서던지 고쳐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혜숙이의 손목을 이끌고 병원으로 오시였다.

혜숙이의 눈을 진찰하시고 난 의사 선생님들은 밤 깊어 가는 줄도 모르고 의논을 하시였다. 배 속에서부터 보지 못하게 된 혜숙이의 눈은 다른 사람들 눈과 달라 잘 자라지 못해서 눈알이 작을 뿐 아니라 말랑말랑한 것이 아주 연약했다. 때문에 잘못 수술하다가는 눈알을 아주 못 쓰게 만들 수 있었다.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혜숙이의 눈 수술을 좀처럼 맡기 어려워하였다.

그러나 안과 과장인 김 정옥 선생님은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시던 끝에 말씀하시였다. 《지금 한창 피여 나는 꽃송이와 같은 혜숙 소녀의 눈을 우리는 꼭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휘황한 공산주의 앞 날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앞 못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다 뜨게 해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함께, 있는 기술, 있는 지혜를 다하여 혜숙 소녀의 눈을 뜨게 해 봅시다.》

과장 선생님의 말씀에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한 사람처럼 결의하여 나서게 되였다.

이날부터 연구 사업에 달라 붙은 선생님들은 병원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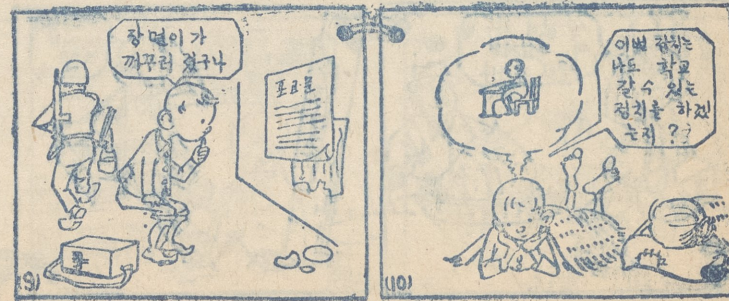
눈 치료법에 대한 책이란 책은 모두 구해다 연구하였고 토끼를 구해다 실험도 해보았다.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라면 어떤 어려운 일도 가리지 않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구하였다.

이곳 선생님들은 앞 못 보는 환자들의 친 어머니가 된 마음으로 있는 지혜와 힘을 환자들을 위해 바치였다. 이리하여 지난 2월 말 안과 과장 김 정옥 선생님과 안과 의사 한 희영, 리 순식, 채 봉숙, 백 성숙 선생들의 집체적인 노력의 결과 수술에 착수하게 되였다.

혜숙이의 수술은 한 희영, 리 순식 선생님들이 맡게 되였다.

선생님들은 손에 땀을 쥐며 대담하게 수술에 착수하였다. 수술 결과를 가슴 조이며 기다리는 모든 선생님들의 얼굴마다에도 긴장한 빛이 떠날 줄 몰랐다. 수술을 담당한 선생님들의 옷은 땀으로 함박 젖었다. 드디여 수술이 끝났다. 이제 그의 눈이 보이느냐, 수술이 실패한 것이냐 하는 것을 시험해 보는 시각이 왔다. 의사 선생님들은 서로 말 없이 마주 바라 보며 숨도 눌러서 쉰다. 드디여 수술을 담당했던 한 희영 선생이 혜숙이 눈 앞에 손을 가져다 댔다. 선생님은 다섯 손가락을 하나 둘 펼쳐 보이시며 《혜숙이, 내 손이 보여요?》 하고 물으시였다.

혜숙이는 한참 눈을 끔쩍이였

그림 허능택

다.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될 것일가》 하고 가슴을 들먹인다.

드디여 혜숙이는 북바치는 듯한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네! 선생님! 내 눈이 보입니다. 하나! 둘! 셋!》 선생님의 손가락을 편이여 세여 내려 갔다.

선생님은 조였던 가슴을 풀어 큰 숨을 내 쉬신다. 선생님은 기쁨과 감격에 뒤섞인 눈물을 지으며 말씀하시였다.

《저 벽에 걸린 초상화가 보이지! 저분이 네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김 일성 원수님이시다.》

혜숙이는 눈을 크게 뜨고 《아 김 일성 원수님!》 하고 목이 메여 불렀다. 얼마나 보고 싶었던 원수님 얼굴이였던가!

둘러 섰던 의사 선생님들도 모두 감격의 눈물을 지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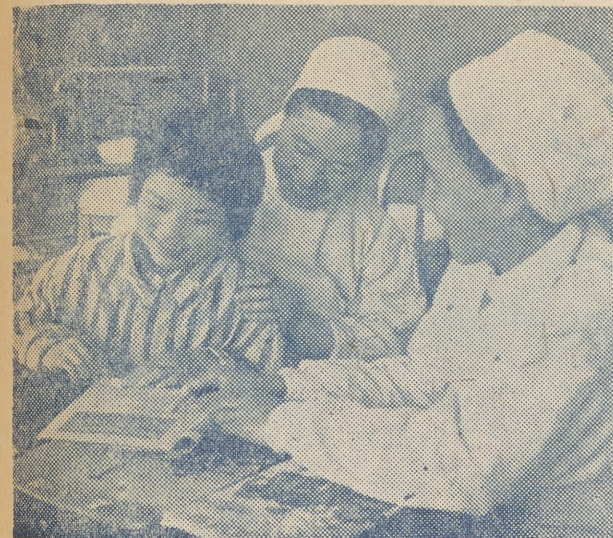
혜숙이가 눈을 떴다는 소식을 받은 어머니가 입원실로 달려 왔다. 그러나 말 못하고 눈물부터 지으시며 들어 오시는 어머니를 보면서도 일생 보지 못한 혜숙이는 어머니인 줄 알아 차리지 못하였다. 《혜숙아 내가 너의 어머니다!》 목이 메여 부르시는 귀에 익은 목소리를 듣고서야 《어머님!》 하고 벌떡 일어 서서 자애로운 어머님 얼굴을 바라 보았다. 혜숙이와 어머니는 그저 말을 못하고 끌어 안은채 눈물만 흘리시였다.

《혜숙이는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이 이 좋은 세상에 낳아 주셨지요! 이 기쁨과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어머니는 당과 김 일성 원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날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3월 12일 저녁이였다. 병원에는 뜻하지 않은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다. 의사며, 환자며, 모두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과 기쁨을 참을 수 없어 설레인다.

혜숙이의 소식을 아시게 된 김 일성 원수님께서 안과 과장 선생님에게 친히 전화를 걸어 오신 것이다.

원수님은 혜숙이가 눈을 떴다는 소식은 몹씨 기쁜 소식이였다고 하시면서 의사 선생님들의 성과를 치하 하시였다. 그리고 혜숙이의

배 혜숙에게 글을 배워 준다

건강은 어떠냐고 물으시며 잘 돌보아 주라고 몇 번이고 당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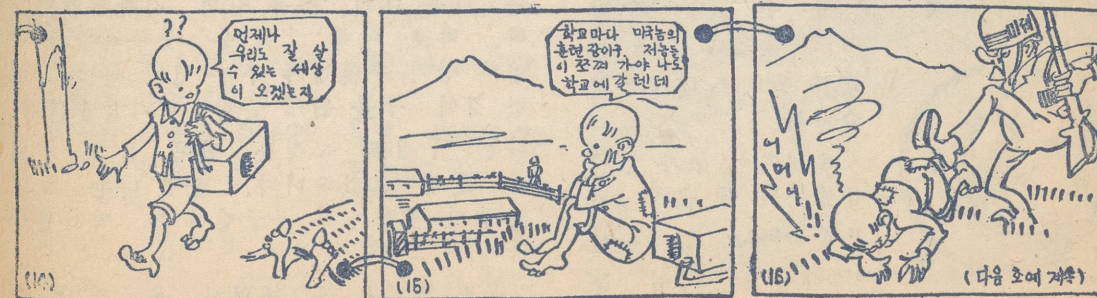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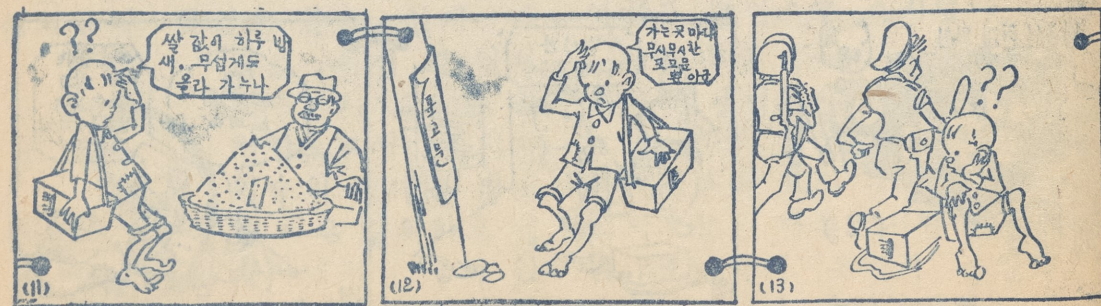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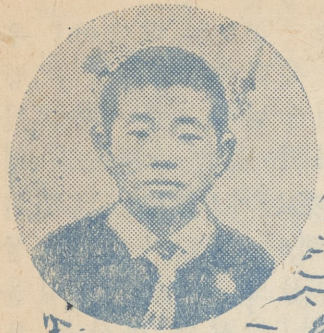
수상님의 전화를 직접 받고 감격에 쌓인 의사 선생님들은 혜숙이 곁으로 몰려 오시여 수상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금치 못해 떠날 줄 모른다.

혜숙이는 너무나 뜻밖의 일에 말을 못한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꼭 원수님의 은혜를 갚고야 말겠다는 결심이 어려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배 안의 소경으로서는 처음으로 눈 뜬 혜숙이! 우리의 행복한 사회주의 제도와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품 속이 아니였드라면 이런 일을 꿈엔들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만약 혜숙이가 남반부에 태여 났드라면 이 꿈같은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 밝은 세상을 보게 된 그의 앞 길에는 나날이 더 큰 행복 만이 안겨질 것이다. 혜숙이는 지금 웅장히 일떠서는 평양 시가와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바라 보며 무한한 행복에 잠기군 한다.

일생 보지 못한 눈을 마음껏 뜨고 보는 혜숙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다. 갓 태여 난 어린 아이처럼 그는 색갈의 이름을 모르며 형형색색의 물건들의 이름을 모른다.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전사들이며 천리마 기수인 의사 선생님들은 눈만 뜨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보고 알아 차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

혜숙이는 지금 《김 일성 원수 만세!》 라고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였다. 혜숙이는 김 일성 원수님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겠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소대의 《아들》

공화국 영웅 조 신형

조국 해방 전쟁 기념관에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나의 전우인 백 운성 동무의 자진과 그의 전투 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명씩 찾아 오는 소년단원들과 어른들은 소년단 넥타이를 맨 그의 자진 앞에서 오래 오래 발걸음을 멈추고 눈시울이 뜨거워 짐을 어찌 할 수 없어 합니다.

× ×

백 운성 동무가 우리 소대에 배치되여 온 것은 1953년 이른 어느 봄 어느 날이였습니다. 월비산 전투에서 대 승리를 거둔 기쁨과 함께 새로 들어온 병사들을 맞이하는 전호 속은 노래와 춤으로 흥성거렸습니다.

소대에서 누가 먼저 불렀는지 백 운성 동무를 가리켜 《꼬마 전사》라는 《이름》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그의 몸집은 아직 소년단원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전투 임무에 충실하였으며 자기의 지휘관을 무척 존경하였고 따랐 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습격 전투를 끝마치고 돌아 온 어느날이였습니다.

그날 저녁 병사들은 토굴 속 아물거리는 석유 등잔'불 밑에서 전투에서 찢어진 옷과 배낭들을 깁고 있었습니다. 배낭을 깁다 말고 나는 운성 동무의 곁으로 갔습니다. 그는 바늘을 손에 쥔채 벽에 기대여 끄덕끄덕 졸고 있었습니다. 슬며시 그의 무릎에서 바늘과 웃옷을 집어든 나는 그의 옷을 깁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그의 옷 웃주머에서 수첩과 함께 무엇인가 무명 천에 싼 자그마한 것이 무릎 위에 툴렁 떨어졌습니다. 나는 무심코 그것을 쥐여 들고 살며시 풀어 보았습니다. 순간 나는 그만 코'등이 찡해지고 목구멍이 꽉 막혀왔습니다.

무명 천에는 동그스럼한 무궁화 꽃 모양의 소년단 휘장 (그때 휘장은 그러했다)과 3개의 붉은 줄을 단 소년단 간부 표식(그때는 그렇게 불렀다.)이 들어 있지 않는가!

수첩 첫장에는 김 일성 원수님의 초상화가 있였고 다음 장에는 소년단원의 의무와 권리, 민청원의 의무와 권리, 그리고 다음 장에는 조선 로동당 강령과 규약이 먹즙으로 또박 또박 적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설 《아동단》을 읽고 느낀 감상과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 갈피에는 5점이 가지런히 적힌 졸업장과 축구 선수 때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들먹이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조직—소년단을 얼마나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였기에 전선에까지 소년단 휘장을 이처럼 간직해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는 본래 평남 녕원 인민 학교 단 위원장이였던 것입니다.

그는 항상 동무들과 의논하여 소년단 사업을 흥미 있게 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습에 뒤떨어진 동무들을 늘 집에 데리고 와서 친절히 도와주군 하였습니다. 그는 소설 《아동단》을 무척 즐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동무들 앞에서 읽어도 주었고 그것을 가지고 감상 모임도 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며 동무들이 알기 쉽게 그림까지 그려다 보여 주군 하였습니다.

원수님의 어버이 같은 품 속에서 이 같이 행복하게 배우며 자라 온 그가 어찌 자기의 조직이였던 소년단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어느날 우리는 상부로부터 351고지를 지원하여 사수할 영예로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적들은 공격을 막으려고 총탄과 포탄을 우박치듯 쏘아댔습니다.

고지는 놈들의 함포와 폭격, 포격으로 몇번이나 뒤집히였으나 우리는 고지를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351고지 주변을 수색 할 것을 명령 받았을 때도 운성이는 자진하여 나섰습니다. 그날 밤 나는 운성이와 병사 한 명을 데리고 수색을 떠났습니다. 적들이 만든 참호를 따라 한 시간이나 산 아래로 내려 가는데 참호는 큰 바위를 에돌아 있었습니다. 《이 바위가?》 이렇게 생각한 나는 다른 동무들에게 전투 준비를 시키고 바위를 등지고 앞으로 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중기가 사격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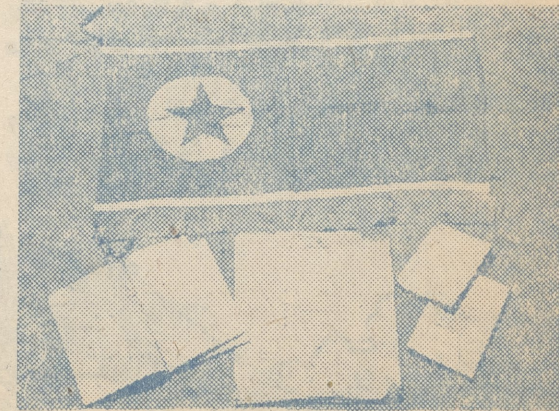
《앗! 발견됐구나,》

나는 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화점을 까부셔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수류탄을 뽑아 들고 앞으로 나가려 할 때였습니다. 누군가가 《부소대장 동무?…》하며 나를 밀어 치우며 쏜살 같이 앞으로 뛰여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불을 뿜던 중기는 독살스런 입을 다물었습니다.

운성 동무가 벌써 내가 막으려던 중기를 먼저 몸으로 막았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적들을 독 안에 든 쥐처럼 한 놈도 남김 없이 몰살시키고 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백 운성 동무는 당과 조국을 위하여 김 일성 원수의 붉은 전사답게 나어린 가슴으로 불뿜는 적 화구를 막고 희생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모든 소년단원 동무들이 운성 동무처럼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소년단 사업에 모범적으로 참가하고 공부 잘하여 원수님의 참된 어린 전사가 될 것을 바랍니다.

그가 간직했던 공화국기와 책과 그밖의 유물들

잊혀 지지 않는 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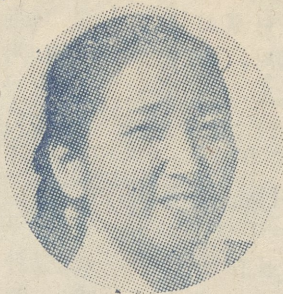
당의 딸로 자라서

◇ 로력 영웅 승 창숙 ◇

나는 붉은 넥타이를 자랑스럽게 날리며 다니는 소년단원들을 만나면 그전 나의 소년단원 시절이 회상되군 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소년단 위원이였어요. 그때 우리는 서로 돕고 배우며 재미있게 지냈어요. 그 때 우리 소년단에는 정 복실 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늘 모임에 빠지군 했어요. 한번은 집에 찾아가 보니 어머니가 늘 앓는 데다가 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임을 열고 위원들과 함께 의논하고 짬 있는 대로 복실이네 집에 찾아 가 집 일을 도왔지요.

그리고 나는 짬짬이 복실이에게 소년단원의 의무를 알려 줬어요.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잘못이 있으면 소년단원의 의무를 한 조목씩 내놓고 의논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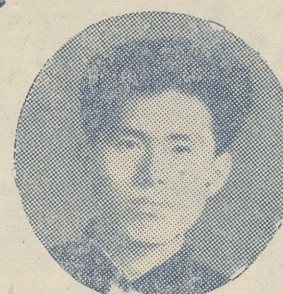
때로는 《소년 신문》과 《소년단》 잡지에 실린 이야기를 읽고 훌륭한 일을 모범 받으며 자기의 잘못들을 스스로 뉘우치기도 하였지요. 어렸을 때의 이러한 조직 생활은 그 후의 나의 생활에 얼마나 큰 힘이 되였는지 몰라요. 공장에 들어 온지 얼마 안되여 어느듯 나는 기술이 늘어 1등품을 짜게 됐어요. 그래서 1956년에는 김 일성 원수님의 표창까지 받았지요. 나는 그때 김 일성 원수님에게서 받은 옷을 명절 때마다 입고 다닌답니다. 원수님이 주신 옷만 입으면 막 힘이 부쩍부쩍 났답니다. 나는 18 세에 영예로운 로동당원이 됐어요.

《창숙 동문 소년단원 때처럼 동무들과 한 덩어리가 되여 훌륭히 일하는구만.》

지금도 나의 입당을 보증한 우리 직장장 동지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 직장장 동지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는 분이니까요. 정말 그래요. 나는 소년단원 시절에 소년단원의 의무대로 배우며 일한 것 처럼 민청원이 된 후에도 민청원의 의무대로 생활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지금 나는 로동당원의 영예를 간직하고 사람들의 앞장에서 당이 준 임무를 실행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제 1 차 5 개년 계획 기간에 나에게 맡겨진 계획도 1년 6 개월에 다해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작업반은 영예로운 천리마 작업반으로 되였습니다. 지난 4월 26일 당은 나에게 로력 영웅의 영예까지 주었습니다. 나는 이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질 좋고 값산 옷감을 더 많이 보내기 위해 7 개년 계획의 첫해 과업을 당 대회 전으로 완수하려고 지금 있는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잊혀 지지 않는 시절

원쑤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 김책 공대 최 원집 ◇

금년이 소년단 창립 15 주년이라고 생각하니 나의 눈 앞에는 잊혀지지 않는 소년단원 시절 일들이 하나하나 떠 오릅니다. 강원도 양양군 우리 마을 건너편 산에는 미제의 앞잡이 《국방군》놈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소년단은 나에게 원쑤를 미워하는 불 같은 마음을 키워 주었습니다.

이 때·나는 단 위원이면서 구호대 대장이였어요. 《국방군》놈들이 있는 건너편 산에 대고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과 남반부 인민들의 비참한 처지에 대하여 말해 주었지요.

단과 분단에서는 경각성을 높이며 경비대원 아저씨들을 도와 드릴 데 대해서 자주 의논했습니다.

나는 그때 《빨찌산의 딸》을 제일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아동단원 정 만금이처럼 원쑤놈들과 용감히 싸울 결의를 다졌어요. 한 번은 캄캄한 밤에 분단 총회를 끝내고 집으로 혼자 돌아 오는 데 어떤 두 사람이 앞을 떡 막아 서며 읍으로 가는 길을 묻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수상한 놈이였어요. 그래서 자위대 초소로 가는 길을 대주고 가만가만 뒤를 따랐습니다. 자위대원 아저씨들에게 붙잡히운 두 놈은 간첩이였습니다.

미제 원쑤놈들은 드디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때 나는 나이가 어린 것이 얼마나 한스러웠던지 모릅니다.

일시적 후퇴 시기 우리 마을에도 원쑤놈들이 기여 들었습니다.

선생님에게서 열심히 들은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과 아동단원들에 대한 이야기는 원쑤놈들 앞에서 나를 용감하게 했습니다.

나는 마을의 몇몇 아이들과 함께 매일 밤 전화선을 끊었습니다.

총알과 수류탄도 몰래 훔쳐다간 숨겨뒀지요. 한번은 《치안대》자무실 라디오를 박살을 냈습니다.

그후 나는 강원도 양양군 빨찌산 울산부대에서 싸웠습니다.

여기서도 나는 소년단원 시기의 영예를 빛내여 원쑤놈들의 총알에 맞아 피 흐르는 왼쪽 다리를 끌면서 산을 넘어 30 리'길 련락 임무를 끝까지 해냈습니다.

그후 나는 군대에 입대하여서도 소년단원 시기에 자래운 원쑤를 미워하는 불타는 그 마음으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24년전 이야기

김 치근

나는 해마다 6월이 오면 1937년 보천보 전투 때를 감명 깊게 회상하게 됩니다.

벌써 그때로 부터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나는 영림서라는 왜놈들이 경영하는 작업소에서 떼를 모는 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놈들이 주는 임금이란 새발의 피만큼도 못되여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족들을 두고 일'자리를 찾아 압록강을 건너 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끝내 일'자리를 얻지 못한 채 허기진 배를 움켜 쥐고 간신히 산'길을 걸어 돌아 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산'기슭에 있는 한 오막살이를 막 지나 치려고 할 때였습니다. 웬 낯 모를 사람 셋이 산굽이 쪽에서 마주 걸어 오고 있었습니다. 흰 바지 저고리를 입은 청년들이였습니다.

무심코 지나 치려는데 그들 중 얼굴이 길쭉한 사람이 걸음을 멈추며

《당신은 어디 사는 분이신가요?》하고 묻는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보천면에 사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건 왜 물으시오?》 그랬더니 이번에는 키가 좀 작은 사람이 내 앞으로 다가서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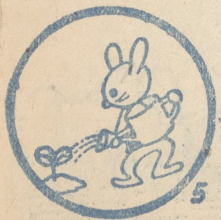



그림 유 환기

《그래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시는 길이요?》하고 묻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압록강을 건너 가는 사람이요.》 내가 대답하자 여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던 얼굴이 둥그스럼한 청년이 불쑥 나서며 묻는 것이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떼'목을 잘 타는 사람 같은데 우리를 건녀 줄 수가 없겠소? 우리는 조선으로 인삼 팔러 가는 사람들이요. 당신이 요구한다면 돈을 줄 수도 있고 인삼을 줄 수도 있소.》하고 말입니다.

이때 나는 얼핏 그 청년의 옷 깃 사이로 속에 입은 누런 군복 저고리를 발견하였습니다. 나는 그만 어쩐지 전신이 화끈해져 더 말을 못하고 그저 그 청년들의 얼굴만 번갈아 바라 보았습니다. 그러자 얼굴이 둥그스럼한 청년이 나의 손을 덥썩 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엉겁결에 그의 손에 이끌리여 풀섶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은 다정한 벗에게나 말하듯 나직히 그러면서도 힘 있게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우리는 김 일성 장군이 령솔하시는 항일 빨찌산 대원들이요.》라고 말입니다.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함께 일하는 로동자들과 마을 청년들 한테서 장백현에서 싸우고 계신다는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오긴 했지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로동자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앞장에 나서 항일 빨찌산 부대를 도와야 하오. 왜놈을 쳐부시고 나라의 독립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 조선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소.》 그의 이야기는 구절구절이 나의 가슴을 울려 주었습니다. 그는 나 같은 사람의 처지를 그대로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사촌네 집에서 지내다가 16세 때부터 압록강 변에 있는 주흥리에서 떼'목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을 넘도록 떼를 탔지만 왜놈들의 착취와 학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그날 그날의 끼니 조차 끓이기 어려운 형편이였습니다.

나는 자기도 모르게 불끈 주먹을 쥐며 《같이 갑시다. 내 얼른 건녀 드리지요》 하고 일어서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얼굴에 기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나의 어깨를 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오. 보천보에 있는 왜놈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한 부대가 건너 와야 하오. 김 일성 장군께서두…》

《네?》 나는 그만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김 일성 장군께서 부대를 거느리시고 보천보의 왜적을 치러 오신다니 이 얼마나 장쾌한 일인가!)

그날 (6월 2일) 나는 다음 날 밤에 다시 압록강변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여졌습니다.

이튿날 (6월 3일) 저녁 나는 경찰들의 눈을 피해 가며 약속한 장소로 나갔습니다. 가슴은 자꾸만 두근거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김 일성 장군께서 부대를 거느리시고 압록강을 건너 서실 것을 생각하니 말이지요. 강'가에 이르자 날은 벌써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 앉아 한참 동안은 멍하니 물결만 바라 보았습니다.

글쎄 밤 사이에 홍수로 강물이 불어 물동이 터지고 떼'목이 강 건너 쪽으로 밀려 가 있질 않겠습니까. 부득불 강을 건너 가서 떼의 한쪽 끝을 돌려 놓아야만 했습니다.

10년을 두고 이 강과 함께 살아 왔지만 어두운 밤에 그처럼 기승을 부리며 흐르는 강물에 뛰여 들자니 어쩐지 가슴이 섬찟했습니다.

순간 어제 그 청년의 말이 새삼스레 떠올랐습니다.

(그렇다. 나는 로동자다.! 김 장군 부대를 건느게 하는 것은 나의 신성한 의무가 아닌가! 김 장군은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왜놈들을 쳐부시고 로동자 농민의 나라를 세우려고 갖은 곤난을 무릅쓰고 싸우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니 주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옷을 벗어 던지고 첨벙 강물에 뛰여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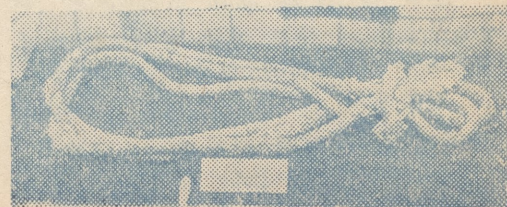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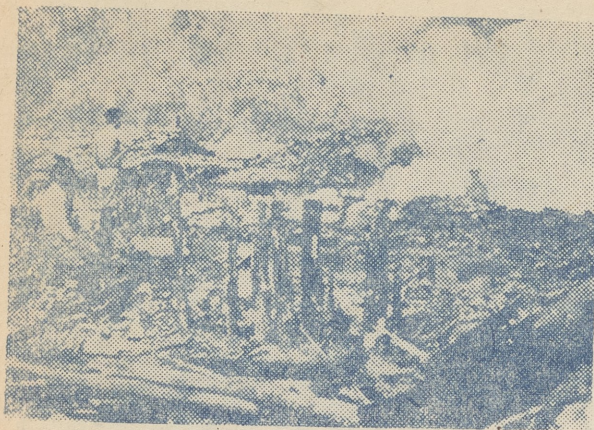
내가 헤염쳐 강을 건너가니 거기에는 벌써 어제 그 유격 대원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불같이 뜨거운 손'길로 나의 어깨와 손목을 덥썩덥썩 잡아 주었습니다.

나는 지체할 사이 없이 빨찌산 아저씨들과 함께 떼로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윽해서 수 십명의 유격 대원들이 강'가로 찾아 왔습니다.

그들의 뒤를 이어 또 수 십명의 유격 대원들이 진군해 왔습니다.

나는 넋을 잃은 사람처럼 감개무량하여 우리 군대의 진군의 대오를 바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렬 맨 뒤에 섰던 분이 (뒤에야 알았지만 그 이가 바로 김 일성 원수님이였습니다.) 나의 손을 잡고 나직

(그때 떼'목을 매던 바'줄)

(유격대에 의해 불탄 놈들의 면사무소 자리)

히 치하해 주시는 것이였습니다.

《동무는 아주 용감한 사람이요. 동무가 아니였더라면 부대가 강을 건느지 못할 번 했소.》

나는 이이가 누구일가 하는 것도 생각지 않고《김 장군두 오셨습니까?》하고 나직히 묻질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대렬에서 수근거리는 소리와 웃음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바로 그이가 김 일성 원수님이였으니 안 그렇겠습니까.

김 일성 원수님을 처음 뵈옵던 그때의 감격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압록강을 건넌 유격 대원들은 가문비, 부은비 나무들이 욱어진 곤장덕 산 마루에서 하루 밤, 하루 낮을 지내며 전투 준비를 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김 일성 원수님께서 유격 대원들과 함께 보천보 전투에 대한 것을 토의하시던 것과 유격 대원들이 삐라를 찍는 것을 이 수림 속에서 보았습니다.

드디여 6월 4일 밤 전투를 앞두고 원수님께서는 유격 대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무들! 우리는 지금 꿈에도 잊지 못했던 조국 땅을 밟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천보 전투에서 대 승리를 거두어 우리 인민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과 독립에 대한 신심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밤 왜놈들과의 전투에서 매개 대원들이 영웅적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원수님께서 대원들을 거느리시고 곤장덕 산을 내리시였습니다. 그때 나는 전투가 끝난 뒤 뗴를 돌보기 위해 몇 명의 대원들과 함께 산 우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윽해서 가림천 물방아'간 근처에서 한 방의 총소리가 밤 하늘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뒤이어 왜놈들의 경찰 주재소와 살림 보호구 농사 시험장과 면 사무소 앞에서 콩 볶는 듯한 총 소리가 일제히 울리더니 면 사무소에 불이 달리고 련달아 이곳 저곳에서 삼단 같은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그렇게 《물 샐 틈 없는 경비진》을 치고 장담하던 왜놈들은 총 한 방도 쏴 보지 못하고 몰살을 당했던 것입니다.

곳곳에서 인민들의 만세 소리가 메아리쳐 울리고 사람들이 가림천 쪽으로 쏠렸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께서 전투를 지휘하신 백양나무 밑으로 군중들이 모여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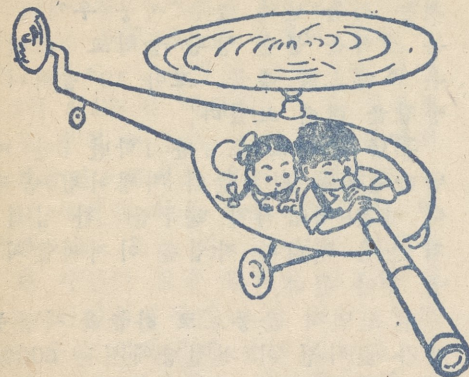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시며 인민들에게 일제는 반드시 멸망하며 조선 인민은 승리한다는 굳은 신심을 북돋아 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셨던 것입니다.

실로 보천보 전투는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며 조선 인민은 그 어떠한 간악한 원쑤도 굴복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일제 원쑤들에게 똑똑히 보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24년 전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원수님이 그를 위해 투쟁하신 사회주의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면 할수록 그때의 원수님의 말씀을 어제 일 처럼 회상합니다. 그리고는 그이의 령도하에 날로 번영하는 사회주의 조국에 사는 기쁨과 함께 그이의 붉은 전사된 영예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당과 수령 앞에 더욱 충실할 것을 마음 다집니다.

세계 일등급의 비날론 공장

우리의 근로자 아저씨들이 카바이트로부터 실을 뽑는 비날론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은 바로 지난 해 초였다. 그때로부터 불과 1년 밖에 되지 않은 오늘 이 비날론 공장이 준공되였다는 자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

5월 6일 김 일성 수상님은 수십만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이 공장 정문에 드리운 붉은 테프를 끊으셨다.

지난 해까지만 하여도 진펄과 갈밭에 뒤덮히였던 룡흥벌에는 웅장한 비날론 도시가 생겨 났다.

50만 평방메터나 되는 터전에 50 여 개의 크고 적은 공장 건물들이 줄비하게 일어 섰다.

이는 실로 흥남에 있는 질소 비료 공장의 5 배나 되며 지난 해 준공된 염료(물감)공장의 7 배나 되는 웅장한 공장이다.

이 공장에 설치된 관을 길이로 편다면 무려 1천 500 리를 갈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관들에 맞 물린 여러 가지 펌프와 땅크, 그 밖의 기계 설비를 모두 합친다면 실로 1만 5천 여 개나 되는 것이다. 또한 기계 설비들과 장치물의 무게는 모두 1만 톤이나 된다.

이 놀라운 것을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아저씨들이 당과 수령님의 부름 받들고 단 1년 동안에 해 냈다. 그리하여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령도 하에 천리마로 달려 나가는 영웅적 조선 인민의 힘을 또다시 온 세계에 시위하였다.

원래 비날론은 1939년에 리 승기 박사가 연구한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왜놈들의 세상이여서 그것을 만들 공장을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었다. 도리여 일제놈들은 리 승기 박사를 감옥에 잡아 넣었었다.

비날론 공장을 건설하는 문제는 오직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우리의 로동당 시대에 와서야만이 비로서 해결 될 수 있었다.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은 조국 해방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 벌써 오늘을 내다 보시며 비날론에 대한 연구 사업을 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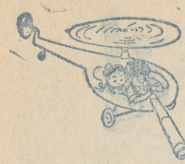
리 승기 박사를 비롯한 우리의 과학자 아저씨들은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원쑤들의 폭격도 무릅쓰고 토굴 속에서 연구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비날론을 공업적인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왔다.

그리하여 드디어 비날론 공장 건설이 시작되게 되였다. 당과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이 공장 건설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진행할 것을 가르치셨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아저씨들은 로동자 아저씨들과 손잡고 함께 일하며 밤에 낮을 이어 어려운 과학 기술적 문제들을 풀어 주었다.

300 여 명의 설계 일'군들은 새로운 기계 설비를 갖추지 못한 어려운 형편을 이겨 내고 단 6개월 동안에 밤에 낮을 이어가며 1만 2천 여 개의 도면을 그려 냈다.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과학 기술이 없이는 손 댈 념도 못할 새롭고 정밀한 그 많은 기계들을 우리의 북중 기계 공장, 룡성 기계 공장 등 50 여 개의 공장 로동자 아저씨들이 훌륭히 만들어 보냈다.

정말 비날론 공장 건설장은 커다란 전투 마당과도 같았다.

전국 이르는 곳마다에서 1만 2천 여 명의 청년들이 달려 왔다. 인민 군대 아저씨들도 달려 왔다.

날에 날마다 세상 사람들을 놀래우는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 났다.

건설자 아저씨들은 밤과 낮을 몰랐다.

보이라의 고장으로 건설장에 쓰일 물건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증기를 보내지 못하게 됐을 때, 보일라공인 고 두만 아저씨는 자기의 가슴으로 적 화구를 막은 영웅들처럼, 300 도나 되는 보이라 열로 속에 몇번이고 뛰여 들어 맥힌 구멍을 뚫어 놓고야 말았다.

제 1 건축 직장 김 치규 작업반원 아저씨들은 령하 15 도나 넘는 추운 겨울 밤에 4층 꼭대기에서 철근 콩크리트 작업을 하였다. 아저씨들은 바람을 막을 가마니가 미처 도착하지 못하자 입은 솜 옷을 벗어서 콩크리트 기둥에 비끌어 매고까지 일하여 하루'밤 사이에 9 개의 기둥에 콩크리트를 쳐 넣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건설자들은 하루'밤 사이에도 1만 립방메터의 흙을 뒤번지고 10만 매의 벽돌을 하늘 높이 쌓아 올렸다.

왜정 때 같으면 1년은 실히 걸렸을 40 메터의 굴뚝을 우리의 아저씨들은 단 13 일 만에 멋들어지게 세웠다.

비날론 공장 건설자 아저씨들이 어제도 오늘도 계속 놀라운 위훈을 세운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말 그대로 온 나라 인민이 성의껏 그들을 도와 나섰다. 여기에는 아버지, 어머니들의 사회주의 건설을 도우려는 우리의 소년단원들의 뜨거운 심정이 담긴 아름다운 이야기도 많다.

빙초산 직장 건설자 아저씨들이 눈보라치는 겨울 날에 높은 지붕 우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들은 양단 중학교 소년단원들은 오리오리 실을 모아 19 켤레나 되는 장갑을 떠서 보냈다.

흥남 중학교 초급반 1학년 6반 녀자 소년단원들은 자기들의 지성어린 솜씨로 빚어 만든 먹음직한 만두를 한 임씩 이고 김 상응 천리마 작업반 아저씨들의 일터를 찾아 왔다.

전 인민적 운동으로 하늘을 찌를듯이 기세가 높아진 이 건설장에서는 500% 쯤이면 보통이고 1000%면 괜찮고 2000% 3000%래야 좋다는 《비날론 속도》가 나왔다.

비날론 공장을 건설하는 사이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아저씨들은 풍부한 경험과 많은 지식을 쌓았다.

우리 나라는 이를 밑천으로 7 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의 화학 공업을 더 한층 발전시킬 수 있게 되였다.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이번 비날론 공장 준공을 경축하면서 5월의 명절을 경축하는 함흥시 군중 대회에서 우리가 달성한 이 성과를 더욱 튼튼히 하면서 앞으로 우리 나라의 화학 공업을 더 한층 발전시킬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러면서 명년 5.1절은 비크론(양복과 외투지를 짜는 것) 공장 건설을 경축하는 것으로 맞을 것을 희망하시였다. 뿐만 아니라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청진과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도 더 빨리 건설할 것을 가르치셨다.

그리하여 지금 여기서는 《비날론 속도》를 뛰여 넘는 불꽃 튀는 투쟁이 벌어 지고 있다. 이제 이 공장이 준공되면 여기서만도 2억 5,000만 메터의 천이 생산된다. 이 두 개의 공장과 비날론 공장에서 나오는 직물만으로서도 우리는 해마다 한 사람이 40 메터의 천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이것으로 옷을 해 입는다면 어른들에게는 한 사람이 일곱 벌씩의 양복이 차례지며 소년단원들에게는 한 사람 앞에 열벌씩의 옷이 차례지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 박천 지구에는 니트론(모직 대용으로 쓰는 것) 공장, 나일론(견직 대용으로 쓰는 것) 공장 등이 건설된다.

이 얼마나 우리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가!

소년단원 동무들! 우리 함께 생각해 보자,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해방전에 남들이 면직 옷을 입을 때 고작해야 베 옷을 입었으며, 남들이 모직을 입을 때면 면직물도 변변히 입지 못하고 살았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옛'이야기로 되였다.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옳바른 령도 밑에 이제 우리는 남 부럽지 않게 먹고 입고 쓰고 살게 되였다. 우리는 이 행복을 남반부의 동무들과 나누지 못하는 것이 가슴 아프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의 비날론 공장에서 나온 비날론 옷을 입을 날이 멀지 않아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는 그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우리는 다 함께 오늘과 같은 행복하고 보람찬 시대를 이 땅에 마련해 준 당과 수상님께 감사를 드리자!

준공된 비날론 공장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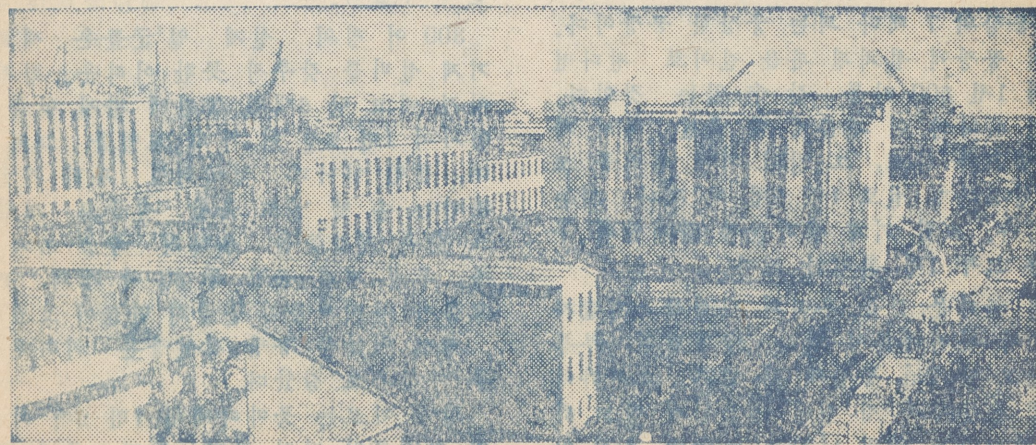
비날론 공장

유치원 꼬마들이
수수'대로 꼬마 공장 만들어 놓고요
비날론 공장이라
손벽치며 좋아해요

꼬마들은 공장 놀음 재미난다며
동그랗게 진흙으로
만든 기계 돌리며
비날론 천 많이많이 짜낸대요

어서 빨리 많이 짜서
통일 되면은
헐벗은 남쪽 땅 동무들에게
얼사하게 비날론 옷 해 입힌다고

꼬마들은 진흙 기계
돌리고 돌려요
커서는 더 좋게 짜 낸다면서
비날론 공장의 로동자래요

함북 길주군 길주 중학교 리 승일

이것을 아십니까?

행군할 때 소금을 먹으면?

우리들은 행군하기 전에 짠 음식물을 먹으면 행군 도중에 갈증 (목이 마르는 것)이 나서 견디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짠 음식을 알맞게 먹는 것은 행군시에 힘을 보존케한다.

무더운 여름 철에 행군을 하게 되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된다. 땀을 많이 흘린다는 것은 그만큼 심장이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 심장이 많은 일을 하게 되니까 사람은 그만큼 피곤해진다.

또 사람은 땀을 흘리면 흘린 것 만큼의 수분을 받아 들여야한다.

만일 사람이 몸에 염분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 염분은 행군시에도 사람의 몸안에 있는 수분을 필요한 량 만큼 몸에 유지하면서 조절한다. 그리하여 땀도 덜 나게 하며 심장의 활동을 헐하게 하여 사람들의 힘을 돋구어 준다.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지 않으면 그만큼 갈증을 이기기가 훨씬 쉬운 것이다.

가장 귀중한 것

강 효 순　　　그림 양 재 혁

(전호에서계속)

땅딸보 놈이 눈'고리를 돌려 우식이를 바라 보았다.

《독종이군 독종이야 실컨 불에 데 죽어 봐라》하며 땅딸보 놈은 코를 벌렁거리고 있었다.

《살려야하오 그래서 비밀을 알아 내야 한단 말이요.》

꺽다리 놈이 하는 말이였다. 그놈은 우식이 앞으로 달려 오더니 우식이의 바지를 벗겨 놓았다. 우식이는 정신을 잃고 허우적 거릴 뿐이였다.

《흠! 그런 독종이 비밀을 내놓을 것 같소?》

땅딸보놈의 맵짠 대'구였다.

《아이놈들은 단순하오. 단순하니까 이런 행동까지 한단 말이요. 그대신 잘 얼리면 비밀을 술술 내놓는단 말이요. 거기 수단이 필요하오》

《흥! 수단?》

《그렇소, 우리 병원에 입원 시켜서 살려 놓고 봅시다.》

《입원이요?》

땅딸보놈은 펄적 뛰는 것이였다.

《그렇소 당신은 항상 조급하고 멀리를 내다 볼 줄 모르는게 탈이란 말이요. 알겠소?》

《흥! 도량 넓은 당신 마음 대로 해 보시요.》

땅딸보는 끝내 빙정대는 말투였다.

꺽다리 놈은 화가 나는 모양인지 이마'살을 찌프리고 한마디 더 되뇌였다.

《글세 죽이는 것쯤이야 뭐가 그리 바쁘겠소. 우선 살려 놓고 달래도 보고 위협도 해보다가 정 듣지 않으면 이 검정 콩알 한알이면 그만이 아니겠소.》하며 꺽다리 놈은 자기의 총탁을 툭툭치는 것이였다. 그자는 땅딸보놈을 흘깃 바라보며 싱긋 웃더니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대신 이놈에게서 비밀만 찾아 낸다면 우리에게는 호박이 넝쿨째 떨어진단 말이요. 알겠소?》

꺽다리놈은 턱을 거덜거리며 껄껄 웃어 보였다.

《하기는 그렇소.》

땅딸보놈은 벌써 무슨 횡재'수라도 만난듯이 닭알 침을 꿀꺽 삼키는 것이였다.

《하여간 경찰 서장에게 제기해 봅시다.》

꺽다리놈은 전화 수화기를 들더니 손잡이를 두르기 시작하였다.

2

조직의 임무를 맡고 경찰서 소사로 들어가 공작하고 있는 소년 선봉대원 창국이는 장작을 들고 경찰서장실로 들어 가려던 참이였다.

이때에 서장실의 전화 벨이 울렸다. 놈들의 비밀을 탐지하기 위하여 언제나 온 신경을 돌리고 있는 창국이는 주춤하고 밖에 서서 귀를 기우리고 있었다.

안경을 코허리에 걸고 무슨 지도를 드려다 보던 경찰서장은 수화기를 천천히 들었다.

《어! 나 서장이요… 아 이놈의 새끼가?…어! 그래서… 짚신짝과 통비 문건이 불타 버렸다구? 에익 멍텅구리 개새끼들아 뭐나 하고 있었니…모가지다 모가지야…어? 아직 살아 있다구? 동화 병원에 입원시켰다구?…좋다 좋아! 그건 잘 생각했다. 뭐? …병원에서 후지부지하면 경찰 서장의 명령이라구 하란 말이야, 그리구 그 놈을 똑똑히 감시 해야 한다.… 좋다!》

전화를 끝낸 서장놈은 자리에서 벌컥 일어서더니 방안을 왔다 갔다하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다.

《만만치 않은 일이야! 아이놈들까지도 목숨을 아까와 할 줄 모르거든! 그렇지만 이놈들 어디 두고 보자!》

서장놈은 이렇게 입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때에 창국이는 문을 열고 서장실로 들어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난로 뚜껑을 열고 장작을 여러개 넣었다. 이 순간에도 창국이의 머리에는 어느 한 아동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

서장놈은 담배 연기를 피우며 계속 방안을 거니는 것이였다.

창국이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그는 장작 더미 앞으로 갔다. 약간 흥크러진 장작을 고쳐 쌓는척하며 창국이는 서장이 전화 받으며 하던 말을 한마디 한마디 새겨 보았다. 그 아동이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는 알수 없었다. 그러나 아동단원이거나 소년 선봉대원임에는 틀림 없었다. 그는 자기가 맡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웠으며 조직의 비밀을 목숨 걸고 지킨 훌륭한 동무라는 것을 넉넉히 알 수 있었다.

《그 동무를 구원해야 한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동무를 구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창국이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이렇게 부르짖었다. 창국이의 두 눈은 영채가 돌아 새'별처럼 반짝였다.

그러나 무엇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막연했다. 그는 무의식 중에 장작 더미를 곱게 쌓아 놓았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아무런 좋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최 선생 집에 들려 보고 하고 그의 지시대로 하리라고 다짐했다.

서장실에 걸린 시계가 3 시를 쳤다. 아직 집에 돌아 갈 시간은 세시간이 남았다. 창국이는 병원에서 신음하고 있을 그 동무를 생각하니 한 시간이 하루보다도 몇 배나 더 길게 생각되였다.

여섯 시가 되자 창국이는 당직 순사에게로 가서 저녁을 먹고 오겠다고 이야기

하고 경찰서문을 나왔다.

창국이는 집으로 돌아 갈 시간이 없었다. 그는 저녁도 먹지 못하고 10리'길이나 되는 최 선생네 집으로 달려갔다. 저녁 먹으러 갔다 오는 시간이 한 시간 밖에 안되는 그는 언덕 길을 줄곧 다름질치지 않을 수 없었다.

창국이는 최 선생네 사립문 앞에서 사위를 둘러 보고 나직한 목소리로 최 선생을 불렀다.

최 선생은 창국이의 목소리를 곧 알아듣고 밖으로 뛰여 나왔다.

《창국이 왔구나. 어서 들어가자.》

최 선생은 창국이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

《들어 갈 겨를이 없습니다.》

창국이는 씨근덕거리며 이마의 땀을 씻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들은 굴뚝 모퉁이로 돌아갔다.

《네.》

창국이는 좌우를 한번 둘러 보았다. 최 선생은 창국이 앞으로 바싹 다구어섰다. 창국이는 최 선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경찰서장이 받던 전화 내용을 이야기했다.

《빨리 그 동무를 구원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좋겠는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알만하다. 창국이는 아주 중요한 것을 알아 냈구나, 혁명적 동지를 원쑤의 손에서 구출하는 것은 우리의 고귀한 의무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며 최 선생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사위는 무척 고요해졌다. 뒤'산에서 들려 오는 밤새 소리가 구성지게 들려 왔다.

밤 하늘을 쳐다보며 무엇을 깊이 생각하던 최 선생은 창국이를 돌아 보며 입을 열었다.

《창국이는 동화 병원에 드나들 수 있나?》

하고 묻는 것이였다.

《네.》

창국이는 선뜻 이렇게 대답했다.

《그럼 잠간 기다리라구.》

최 선생은 이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창국이는 밖에서 혼자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는 밝은 달을 쳐다보며 최 선생이 어떤 과업을 주겠는가 기다리고 있었다. 밝은 달이 검은 구름 속에 들어갔다. 그러더니 검은 구름은 밀려 가고 다시 밝은 달이 환히 비치였다.

《병원에 있을 그 동무에게 가리운 검은 구름을 빨리 벗겨 주어야지!

그래서 저 달처럼 명랑하게 그 동무를 구원해 주자.》

창국이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조금 후에 최 선생이 나왔다.

《이 편지를 될수록 빨리 그 동무에게 전해 주어야겠는데 될 수 있을가?》

《네 될 수 있습니다.》

창국이는 최 선생에게서 쪽지를 받았다. 최 선생은 이런 말을 덧붙여 말했다.

《그 동무는 자기 생명을 단념하고 놈들에게 지나치게 반항할 수도 있고 혹은 자기 힘으로 탈출해 보려고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겠으니까 이 편지를 빨리 전달해서 안심시켜야겠단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창국이는 최 선생과 헤여졌다.

그는 언덕 길을 걸으며 맡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병원에 드나들 수 있다고 대답은 했으나 놈들이 인정하는 용무도 없이 서뿔리 병원으로 갔다가는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자못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창국이는 어느듯 경찰서 정문 앞에 이르렀다. 그는 경찰서로 들어가지 말고 우선 병원으로 달려 가 볼가도 생각해 보았다. 그래서 병원의 형편을 보아 쪽지를 전하고 올 수는 없을가 생각했다.

《어떻게 할가?》

창국이는 정문 앞에서 망서리고 있었다. 이때에 안에서 째지는 듯한 목소리로 창국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 왔다. 수직하려 나온 순사놈의 목소리였다.

《네.》

하고 대답하며 창국이는 안으로 뛰여 들어 갔다. 순사놈은 창국이가 나타나자 고래고래 소리쳤다.

《시계를 봐라 30분이나 늦었어?》

《미안합니다. 저녁이 좀 늦어져서 지금에야 왔습니다.》

창국이는 머리를 쓱쓱 긁으며 싱글벙글 웃어 보였다.

《그대신 난로'불이나 잘이 피워라.》

순사놈은 창국이의 어깨를 주먹으로 툭 갈기는 것이였다.

《네! 난로'불만이 아니라 차'물도 따끈히 데워 드리니까 념려 마셔요.》

창국이는 코'살을 찡긋하며 대답했다. 그는 밖으로 나가 장작을 한 아름 안고 들어 왔다. 창국이는 난로 뚜껑을 열고 장작을 넣으면서도 정신은 병원으로만 줄달음치고 있었다. 화상을 입고 병원에 누어 신음할 동무를 생각하니 가슴이 막 조여 드는 것 같았다. 한 시각 이라도 빨리 병원으로 달려가 쪽지를 전해야겠는데 도무지 빠져 나갈 수가 없었다. 더구나 오늘 걸려 든 순사놈은 그중에서도 제일 까다로운 놈이였다.

(어떻게 할가?)

장작을 넣고 난 창국이는 돌미륵처럼 난로 앞에 우뚝 서고 한군데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때에 창국이의 눈에는 난로 곁에 있는 굵은 장작이 눈에 띄였다. 너무 굵어서 난로 뚜껑으로 들어가지 않아 그대로 놓아 두었던 것이였다. 이 순간 창국이의 머리에는 좋은 생각이 아침 해'살처럼 솟아 올랐다.

(음! 그렇다! 그렇게 하자. 동무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작은 아픔쯤이야 무엇이 어려우랴)

창국이는 입술을 힘있게 다구어 물었다. 그의 눈은 자못 빛났고 얼굴에는 미소가 흘렀다.

《빨리 목욕탕 물을 끓여라.》

순사놈의 호령이였다.

《네 곧 끓이겠습니다.》

창국이는 굵은 장작개비를 안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도끼를 얻어다가 지금 가지고 나온 장작을 패기 시작했다.

《탕! 탕!》

하고 장작 패는 소리는 고요한 밤 공기를 흔들었다.

한동안 장작을 패던 창국이는 《아이쿠》 하고 비명을 올리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왜 그러냐?》

순자놈이 소리쳤다.

《도끼로 발'등을 찍었습니다. 으흐흐 흐.》하며 창국이는 계속 울음 소리를 높였다.

《똑똑히나 하지 않구 뭣 때문에 발'등을 찍는단 말이야 눈깔이야 없소까?》

순자놈은 오히려 짜증을 내면서 전지불을 켜 들고 밖으로 나왔다. 전지불은 창국이의 발'부리에 비치였다. 창국이의 발'등에서는 선지피가 흐르고 있었다.

창국이는 꽁무니에 찼던 수건으로 발등을 싸 매고 있었다. 어느듯 수건에는 피가 젖었다.

《이 바쁜 통에 발'등을 찍어서 어떻게나 할 작정이냐?》

순자놈은 오히려 호통을 치는 것이였였다.

창국이는 상을 찡그리고 절뚝거리며 수직실로 들어가자 한 가운데 놓여 있는 의자에 펄썩 주저 앉았다.

《여기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할테냐 빨리 병원에나 가서 약이나 발라라》

《괜찮습니다. 래일 아침에 가지요 뭐》

《그러다가 균이나 들어가면 더 오래 앓을게 아닌가, 너나 앓고 있으면 일은 누가 할텐가.》

《밤에 가도 약을 발라 줄가요?》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 내 편지를 써 줄게 빨리 갔다 오너라.》

《그럼 한장 써 주서요.》

순자놈은 의사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 주었다. 창국이는 편지를 받아 들었다.

(홍 일은 순조롭게 되는구나!》

창국이는 이렇게 생각하며 순자놈 몰래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막대기를 짚고 절뚝거리며 병원으로 발'길을 옮기였다.

(다음 호에 계속)

여름 철 피마주 가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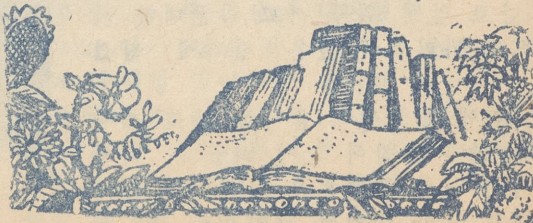
여름철에 피마주는 계속 잎을 따는(피마잠사료로) 관계로 밑거름을 많이 주어야 된다.

때문에 6~7월말에 둬번 정도 류산 암모늄과 과린산 석회 또는 재를 덧거름으로 주는 것이 좋다. 이 밖에 8월 중순 경에는 잘 썩은 인분 뇨를 5:1 비률로 물에 타서 주면 마가을까지 잘 자란다.

피마주 대의 첫 마디와 둘째마디에서는 잔뿌리가 잘 나온다. 그러므로 6월 말 경까지 북을 돋구어 마디를 잘 묻어 주면 북을 주지 않는 것에 비하여 잎은 2배 이상, 씨는 1.5배 이상 더 거두게 된다. 그리고 본엽(원줄기에서 자라 나온 잎)이 4~5매 되였을 때 순을 쳐 주면 꽃이 훨씬 많이 핀다.

피마주가 꽃 피기 시작하는 6월 말에 가서 잎을 많이 따면 피마주 알이 잘 여물지 않아 수확이 줄어든다. 만약 50%의 잎을 딴다면 약 40%의 씨앗을 못 얻게 된다. 입을 딸 때는 밑으로부터 우로 올라 가면서 따야 한다.

여름 철에 피마주 병에는 장승병 잎마르는 병등 여러가지가 있다. 제일 많은 장승병은 줄기의 밑 부분인 흙과 닿는 부분이 흑갈색으로 되면서 썩은 것 같이 보이며 순이나 잎은 수분 부족으로 시들다가 말라 죽는다. 때문에 이병에 걸리면 뿌리까지 캐여서 소독하며 동시에 다른 피마주에 전염되지 않게 그 자리에 석회 또는 석회질소를 넣고 묻어야 한다.

또 여름에는 피마주를 해치는 벌레들인 붉은 진디가 움바구미 등이 있다. 붉은 진디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석유에 류황을 섞어 뿌려주어야 한다. 움바구미를 잡자면 피마주대 주위의 흙을 파 헤치면서 잡와야 한다.

《둥기 둥당…》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에요.

나는 일본에 있을 때 이 소리를 다만 라디오에서만 들었어요.

《잘 들어라, 조국의 악기 소리란다.》

그때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군 했습니다.

들을 때마다 조국이 그리워 조국의 품에 안기고 싶어 자꾸만 듣고 싶던 그 아름다운 소리! 가야금 소리!

나는 지금 그 소리를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멀리 아름답게 울리어 보내고 있습니다.

× ×

내가 학교에 온 첫날이였습니다.

그날 우리 학교에서는 일본에서 귀국한 동무들을 환영하기 위한 써클 공연이 있었지요.

크고 작은 동무들이 제 키만한 또는 제키보다 더 큰 악기를 들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둥기 둥당…》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워 하던 조국의 악기입니까.

《나도 언제 저 동무처럼 타 볼가?》

오직 이 한 생각으로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공연은 끝났지만 가야금 소리는 그냥 가슴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끄러움도 잃고 동무들 앞에서 그 소리를 홍얼홍얼 외워 보았지요

그 다음 날 저녁이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나를 불렀어요.

《순남이, 순남이는 어느 크루쇼크에 들겠어요?》

둥그스럼한 얼굴에 웃음을 가득 담고 선생님이 묻지 않겠어요.

《가야금을 배우겠습니다.》

서슴없이 이렇게 말해 놓고 보니 어쩐지 부끄러운 감이 들어 얼굴을 붉혔어요.

(혹시 뭐라고 이야기 하실가)

나는 선생님의 입만 지켜 보았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음악 크루쇼크에 드세요,》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셨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선생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이런 조국, 이런 선생님의 품에서 배우게 된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외웠습니다.

교원실을 나오기가 바쁘게 집을 향해 뛰는 나는 조금도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나는 오늘부터 가야금을 배우게 됐어요.》

단숨에 뛰여 온 나는 숨을 몰아 쉬고 어머니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하시더니《오냐 잘 배워라 조국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하겠니.》하고 말씀하시면서 머리를 쓰다듬는 것이였어요.

어머니도 아마 내 마음과 꼭 같았던가 봐요. 눈물을 머금는게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나는 하루도 빠짐 없이 가야금을 열심히 배웠어요.

선생님과 동무들은 있는 힘을 다해 차근차근 도와 주었지요.

사회주의 조국은 참말로 좋아요.

사람들도 좋고 악도기 좋아요.

나는 지금 혁명 가요까지 마음 대로 멋있게 탈 수 있게 되였습니다.

《둥기 둥당…》

그리하여 이번 6.6절 경연 대회까지 참가하게 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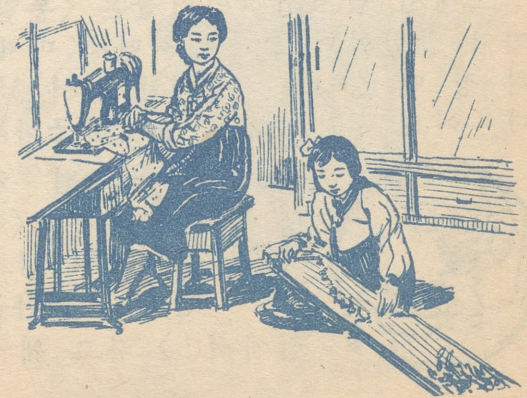
나는 가야금 13줄에 온 마음을 다 모아 노래합니다.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김 일성 원수님 공부와 소년단 생활을 더욱 잘 하여 나라의 훌륭한 일'군이 되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훌륭한 민족 음악가가 되여 번영하는 사회주의 내 조국을 마음껏 노래하겠습니다

함남도 오로군 오로2중학교
2학년 2반 최 순남

남조선을 피바다로 만들려는 미제는 당장 물러가라!

라디오에서 울려 나오는 방송원 아저씨의 웨침 소리에 잠을 깬 영수는 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났다.

《악당놈들 같으니.》

어느새 벌써 일어 나셨는지 아버지는 라디오 곁에서 불끈 주먹을 틀어 쥐시는 것이였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라디오 곁으로 닥아 간 영수는 아버지에게 나직히 물었다.

《지난 5월 16일 새벽 〈군사 정변〉을 일으킨 장 도영이란 놈이 지금 리 승만이 때보다 더 악독한 방법으로 인민들을 탄압한다는 구나,

작년 4월 19일 남조선 인민들은 헐벗고 굶주리다 못해 더는 그대로 살 수 없어 싸움에 떨쳐 일어나 리 승만이를 내 쫓지 않았니,

그러자 미국 놈들은 장 면이란 놈을 앉히고 남조선 인민들을 속여 보려하였다. 그러니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되였겠니 그놈이 그놈이지.

그래서 남조선 인민들은 〈통일만이 살길이다〉고 웨치면서 미제와 장 면 도당을 반대해 일어 났다. 너도 선생님께서 들었겠구나》

《그럼요, 남조선 학생 형님 누나들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라고 웨치면서 5월 중으로 우리 북반부 학생들과 만나자고 하지 않았어요.》

하고 영수는 신이 나서 대답했다.

영수 아버지의 고향은 서울이다. 거기에는 할머니와 함께 작은 삼춘이 계신다. 얼마 전 아버지는 영수의 삼춘도 대학에 다니면서 평화 통일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씀했었다. 그때 영수의 가슴은 나서 처음으로 삼춘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 기쁨으로 하여 높이 뛰였었다.

《작년 8.15 해방 15 주년 경축 대회에서 하신 김 일성 원수님의 말씀과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8차 회의 편지와 의견서는 남조선 인민들이 나아갈 길을 밝혀 줬거든. 미국놈들이 물러가지 않고는 그 어떠한 괴뢰 정권이 들어 앉아도 굶주림과 헐벗음은 매한가지란 말이다. 그래 인민들이 날마다 들고 일어 났거든.

이렇게 되니 미국놈들이 리 승만이 때도 그랬는데 장 면이를 올려 놓아도 점점 목아지에 걸린 올가미가 조여 들었단 말이다. 이렇게 되자 간악하고 교활한 미국 놈들은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총칼로 막고 문허져가는 식민지 통치를 조금이라도 더 유지해 보려고 제놈들의 충실한 개인 장 도영 같은 군복입은 깡패를 시켜서 〈군사 정변〉을 일으켜 제손으로 장 면을 집어 치웠단말이다.

미국놈들은 장 도영을 비롯한 인민의 원쑤들을 시켜 통일을 주장한 남조선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붙들어 감옥에 쓸어 넣고 있단다.

16일 새벽 볶닦음이 있은후 장 도영 악당들은 3~4일 동안에만 3,500명도 넘는 애국 인사 (통일을 주장한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다니 남조선 인민들의 처지가 어떻게되였겠 니, 〈평화 통일〉이란 말 한마디 했다고 〈군사 재판〉에 넘기고 있다.》

원쑤놈들에 대한 증오로 아버지는 온 몸을 떨었다. 영수는 조그만 주먹을 돌처럼 굳게 틀어 쥐였다.

《장 도영이 같은 악당놈들이 제아무리 날뛰여도 오래는 못간다.

정치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앵숭이 불한당 놈들이 남조선의 경제를 어떻게 복구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이끌어 올린단 말이냐.

소가 웃다가 꾸레미가 터질 노릇이지. 그놈도 이제 리 승만이 신세가 될날이 오고야 만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날마다 굶어 죽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다. 서울 인민들은 절반 이상이나 굶고 있단다. 통일을 위해 일어선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제 아무리 발악해도 못 막아 미제 승냥이 놈들이 제굴로 도망칠 날도 멀지는 않았다.》

아버지의 말씀은 힘찼다.

아버지는 그날을 위해 7개년 계획을 더욱 빨리 앞당기기에 힘쓰겠다고 하였다.

《난 졸업할 때까지 그냥 최우등으로 공부하겠어요. 이것이 원쑤놈들을 미워하는 나의 마음이예요.》

영수도 힘있게 마음 다졌다.

그는 첫 아동단원이였다 (5)

글 – 박 웅호
그림 – 최 순천

(37) 중대 지도자 리 봉희 누나는 가책에 잠긴 문섭이를 다정히 끌어 안으며 타이르듯 말하였다.

《조직의 위임— 이것은 규률이예요. 누구도 이를 위반할 수 없어요, 목숨을 바쳐서라도 조직의 위임을 해내는 사람만이 참된 혁명가예요.…》

(38) 봉희 누나는 들고 온 꾸레미를 풀었다.

따뜻한 저녁 밥이였다.

《문섭 동무! 잘못은 잘못이고 몸을 돌봐야 해요. 자! 동무가 잡아 온 노루 고기예요. 인민들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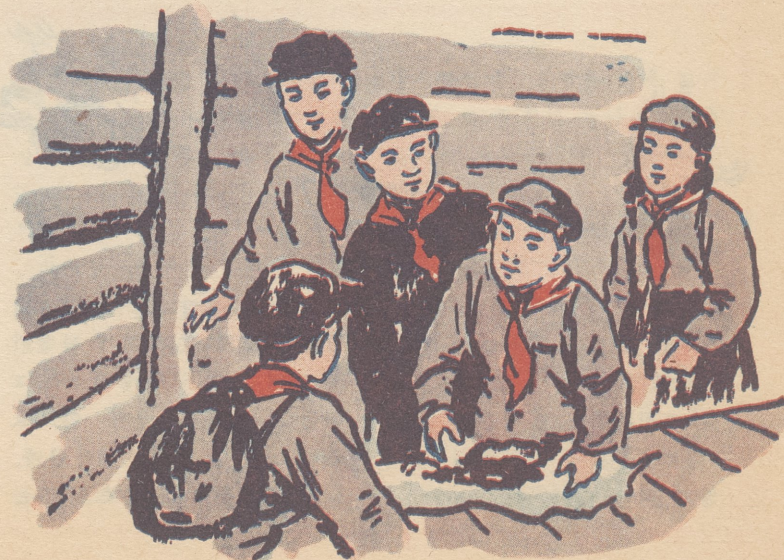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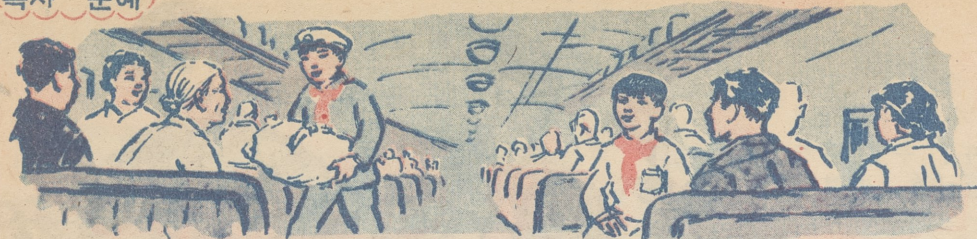
(39) 문섭이는 봉희 누나의 따뜻한 사랑에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그는 누나의 품에 안겨 어린애처럼 흐느껴 울었다.

(40) 봉희 누나가 돌아가자 춘삼이가 찾아 왔다. 《문섭아 가자! 우린 네가 잡은 노루 고기를 병원에 가져 가기로 결정했어 자! 같이 병원에 가자!》하며 문섭이의 손목을 끌어 당겼다.

(41) 문섭이는 춘삼이가 졸라대는 바람에 마지못해 끌려 나왔다.

《문섭아! 잘못은 고치면 된다. 누가 더 빨리 제 잘못을 고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렇지만 락심 할 건 없다. 네가 잡은 노루가 어떤 좋은 일로 변했는지 알어?》 문섭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스적스적 걷기만 하였다.

(42) 이들은 기숙사에 들려 분대 아이들과 함께 자기들에게 배급된 노루 고기를 떡잎에다 싸가지고 병원으로 떠났다. 이것을 보니 문섭이의 마음은 좀 깔아 앉는 듯 했다.

(다음 호에 계속)

독자 문예

《완장 없는 렬차원》

내 곁에 앉았던 아이
앞가슴에 나처럼
붉은 넥타이 드리운 동무
어느 학교 소년단원일가,

저녁 노을 물들어
고운 차창을
알른알른 빛나게 닦아 나가요.
소년단원 마음처럼 더 고와지라고

기차가 서자 마자
말없이 내리기에
여기가 저애네 마을인 줄 알았더니
할머니를 모시고 올라 오겠지.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자리까지 척 내여 드리고
키 돋움하며 선반 우에
보'짐을 올려 놓아요.

아마 저애네 할머닐거라고
나는요 슬쩍 물어 봤더니
생글생글 웃으며 머리를 젓다가
《그렇지만 다 우리 할머니처럼…》

붉은 넥타이 우에
고운 얼굴 붉히며
말끝을 다 못 맺어도
알만하구나 아름다운 네 마음을

그냥은 차마 앉아 있기 부끄러워
나도 함께 렬차원 누나를 도와
창문 터마다 걸레를 쳤어요
널린 휴지를 주었어요

《완장 없는 렬차원!》
손님들은 저마다 칭찬이지만
그게 무슨 자랑 받을 일이라는
아, 이 아름다운 마음의 동무들이
우리에겐 실로 얼마나 많은지!

함북 연사군 신양 중학교
허 원길

동요

과일 동산 만들자

앞집 순이
뒤'집 영호
어데로 가니?
동이 이고
삽들고서
어데로 가니

과수원 만들러
동산으로 간다
어서 너도 나오너라

북청 사람
부럽잖게
과일 동산 만들자야

낮은 산
높은 산
어데 가나 과일 동산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 도와서
우리도 만들자
과일 동산 만들자

평북 녕변군 관하 중학교
리 재길

동시

온 세계 소년들아 어깨 겯고 나가자

오늘은 6. 1절 국제 아동절
공산주의 그날 향해 힘차게 나가는
우리는 행복한 조선 소년단
온 세계 소년들아 어깨 겯고 나가자

우리는 자랑찬 나라의 주인들
맑고 푸른 하늘이 손 저어 부른다.
우리 희망 얼마나 높고 또 높니
우리 갈길 얼마나 보람차니

온 세계 소년들아 너희들은 알리라
우리 나라 남반부의 김 주렬 소년을
총탄을 눈에 박아 바다'물에 내던진
그 원쑤 누구인지 너희들은 알리라

온 세계 소년들아 힘을 합치자
전쟁 도발 일삼는 미제 원쑤 짓부시며
평화 위해 힘차게 우리 함께 나가자
비둘기 떼 훨훨 온 세상에 날리자

자강도 화평군 회중 중학교
오 병철

(토끼 사양 크루쇼크원들에게)

장마철 토끼 기르기

토끼 우리

장마철에 토끼 우리가 비에 젖거나 습기가 차서는 안된다. 때문에 비가 새지 않도록 지붕을 고친다거나 덧지붕을 만들어 토끼우리에 비'바람이 맞지 않게 해야 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토끼우리 안에 바람이 잘 통하게 만들어야 하며 토끼 우리 둘레에는 도랑을 깊이 쳐서 우리 안으로 물이 스며 들지 않게 해야한다. 토끼 우리를 여러 층으로 만든 곳에서는 되도록 아래'층에는 토끼를 넣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장마철에는 토끼우리에 습기가 차면 토끼들이 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우리 안을 자주 소독을 하여야 한다.

사 료

장마철에 토끼 풀은 반드시 1~2일간 널어 놓아 시들게 해서 먹어야 한다. 풀에 비'방울이나 이슬이 있는 것을 먹으면 토끼는 곧 설사병에 걸린다.

어미 토끼에게 주는 사료는 수분이 65%가 넘지 말아야 하며 젖 뗀 새끼 토끼에게는 수분이 45%가 넘지 말아야 한다.

장마 철에는 광물질 사료와 동물질 사료를 정상적으로 먹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물고기 뼈, 게, 가재, 골뱅이, 개구리 등을 삶아서 말리웠다가 매일 1~3g씩 먹이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하루에 1~2g의 소금도 먹이는 것이 좋다.

사료를 줄 때 나무 가지 사료를 섞어 주면 위장이 단련되여 설사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병난 토끼 관리

장마철 토끼병은 설사병과 콕시즘이다. 토끼가 병에 걸리면 곧 딴 우리에 병난 토끼를 옮기고 치료를 해 주어야 한다.

설사하는 토끼에게는 도토리 나무 잎을 먹이는 것이 좋으며 콕시즘은 파즙을 먹이는 것이 좋다.

현상 문제

(1) 이 나무들은 왜 이렇게 자랐을가요.

(2) 이 씨는 무슨 식물의 씨입니까?

3호 현상 문제 해답

뜨락또르의 앞바퀴를 뒤'바퀴에 비하여 작게 만드는 것은 다음과 같은 리유에서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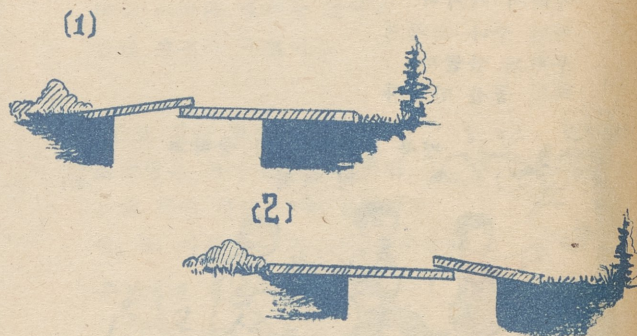
① 뜨락또르 운전수가 방향 운전을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야에서 작업할 때 때때로 곧 그 자리에서 맴 돌듯이 방향을 돌려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앞바퀴가 작아야만 적은 면적에서 쉽게 돌아 갈 수 있습니다.

② 앞바퀴를 작게 하면 땅과 바퀴가 접촉하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마찰도 그만큼 적어져 속력에도 관계됩니다.

③ 앞 바퀴를 작게 하면 뜨락또르가 발이랑을 따라 몰기도 쉽습니다.

3호 현상 문제 당선자

개성지구 장풍군 석촌 중학교 리 명재
황남도 강령군 향죽 중학교 김 용식
황북도 수안군 성교리 중학교 리 인수
함남도 인흥군 왕장 중학교 김 윤수
함남도 신포시 동호 중학교 왕 병화

4호 현상 문제 해답

4월호 현상 문제 당선자

황남도 재령군 서원 인민학교 림 용호
황남도 청단군 룡포 중학교 (인민반) 유 정숙
자강도 만포군 견중 중학교 주 종명
강원도 세포군 리목 중학교 박 문경
평남도 성천군 군지 중학교 리 문화
평남도 북창군 광로 중학교 김 정농
평남도 중화군 충룡 중학교 정 시영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61년 제 6호(총 140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ㄴ—32248 값 25 전 150,000부 발행

모형 함선

재료표

№	명 칭	재료명	규 격
1	상부 선체	합 판	220MM×30MM
2	하부 선체	소나무 판재	220MM×10MM×30MM
3	키	박 철판	36MM×20MM (통조림 통으로)
4	추진기	〃	30×30MM (〃)
5	추진기취부틀	〃	63MM×16MM (〃)
6	추진기축	강철선	φ 2MM×50MM
7	동력고무		2MM×3MM×300MM
8	고무 걸개	강철선	φ 2MM×30MM
9	고무 감는 와인대	강철선	φ 2MM×150MM

만드는 법

합판과 소나무 판재를 그림 ①과 ②의 모양으로 만든 다음 상부 선체 ①을 하부 선체의 중앙에 고정시키고 빈 통조림 통을 가위로 키 ③, 추진기 ④, 추진기 취부틀 ⑤를 오려내고 ③과 ⑤는 적은 못으로 고정시킨다.

추진기 ④는 중앙에 축 ⑥을 납으로 고정시키고 4개의 날개를 일정한 방향으로 비틀리게 하여준 다음 고무 ⑦을 약 두 배의 기리로 연장시켜 와인다 ⑨로 감은 다음 고무걸개 ⑧에 끼우고 물에다 놓으면 함선은 앞으로 가게된다.